

한국언론학회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AI시대 뉴스룸의 실존적 재구조화: 이론적 지평의 확장과 이용자 경험의 재설계

2026년 5월 8일 (금) 14:30-15:50 (3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4, 5

주최  한국언론학회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AI 시대 뉴스룸의 실존적 재구조화: 이론적 지평의 확장과 이용자 경험의 재설계

장소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4, 5 일시 2026년 5월 8일 (금) 14:30-15:50 (3부)

주최 한국언론학회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로그램

세션 1: 저널리즘 이론의 재형성(Re-theorizing)

정은령(세명대) 사회

이종명(충남대) 발제1 박선희(조선대), 박영흠(성신여대) 토론

저널리즘 경계 재구성: 새로운 저널리즘 행위자의 득세와 객관주의 문법의 인식론적 변동

오세욱(선문대) 발제2 박소영(조선대), 함영건(YTN) 토론

AI시대 새로운 객관성으로서 투명성 구현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세션 2: AI 대전환기, 뉴스와의 결별인가 재결합인가

김경희(한림대) 사회

김영주(한국언론진흥재단), 정용국(동국대), 정재민(KAIST) 발제1

이재길(한림대), 최수진(경희대) 토론

관심은 높고 신뢰는 신중하다: AI 저널리즘 수용 조건과 이용자 인식

이소은(부경대), 박찬경(경북대) 발제2 안수찬(세명대), 황현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뉴스와 언론은 어떻게 다른가? 뉴스의 지평과 언론의 경계

기획취지

한국언론학회 2026 봄철정기학술대회 대주제 세션

AI 시대 뉴스룸의 실존적 재구조화: 이론적 지평의 확장과 이용자 경험의 재설계

제52대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은령)는 '보다 이론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언론학'이라는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슬로건에 조응하여 AI가 초래한 뉴스 생태계의 격변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생성형 AI는 뉴스룸의 제작 공정을 넘어 저널리즘의 존재론적 기반과 뉴스 이용자의 인식 체계 자체를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대주제 세션에서는 저널리즘의 고전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이론적 도약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뉴스 소비 주체인 이용자의 경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피는 실천적 탐색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기술 문명의 전환기 속에서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새로운 뉴스룸의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학문적 여정에 동료 연구자 여러분의 혜안을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세션 1] 저널리즘 이론의 재형성(Re-theorizing): 규범적 가치와 인식론적 토대의 확장

생성형 AI가 저널리즘 실천과 뉴스 산업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함에 따라, 기존의 저널리즘 이론 또한 새로운 성찰의 시점에서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저널리즘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고 당면한 위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차원의 선제적 혁신과 도약이 필요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모색하고, 기존 이론의 재해석과 재구성을 위한 학계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세션 2] AI 대전환기, 뉴스와의 결별인가 재결합인가: 이용자 인식과 수용성 지형도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정보 탐색의 경로와 뉴스 이용 경험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AI 시대 저널리즘이 직면한 본질적 위기는 뉴스룸 내부를 넘어, 뉴스를 소비하는 시민들의 감각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읽고 보는 뉴스'가 '질문하고 답을 얻는 뉴스'로 대체되는 환경에서 이용자의 경험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들이 저널리즘에 기대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언론의 실천적 생존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세션 1: 저널리즘 이론의 재형성(Re-theorizing)

발제1

저널리즘 경계 재구성: 새로운 저널리즘 행위자의
특세와 객관주의 문법의 인식론적 변동

이종명(충남대)

저널리즘 경계 재구성

: 새로운 저널리즘 행위자의 득세와 객관주의 문법의 인식론적 변동

이종명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환경의 확장과 생성형 AI의 확산 속에서 저널리즘의 경계와 정당성의 승인 기준이 어떻게 흔들리고 재구성되는지를 탐문한다. 문제의 핵심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나 전통 언론의 영향력 약화 자체가 아니라, 누가 저널리즘을 수행할 자격을 갖는지, 그리고 무엇이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널리즘 장, 경계 작업, 승인 질서의 관점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플랫폼 기반 시사·정치 콘텐츠 생산을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단순 호명하기보다, 전통 저널리즘의 형식과 권위를 선택적으로 차용하는 ‘저널리즘적 실천’으로 개념화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 출처 제시, 전문가 인용, 현장성, 균형 등은 사실성과 권위를 조직하는 형식적 지표로 작동하지만, 취재·검증·정정·책임 구조와는 비대칭적으로 결합되기 쉽다. 더 나아가 생성형 AI는 이러한 객관주의 문법을 손쉽게 복제·자동화함으로써 저널리즘처럼 보이는 형식과 실제 검증 및 책임 구조 사이의 분리를 심화시킨다. 본 연구는 결국 오늘날 필요한 것이 저널리즘의 외형적 경계를 방어하는 일이 아니라, 투명성, 출처 추적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정정 가능성, 인간의 최종 책임과 편집권이라는 최소 조건을 통해 저널리즘의 승인 질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핵심어: 저널리즘 장, 경계 작업, 승인 질서, 객관주의 문법, 생성형 AI

* journaleest@cnu.ac.kr

1. 들어가며

오늘날 ‘저널리즘’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전통적 뉴스 생산자와 생산 관행의 전유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속 행위자들이 공적 정보 생산과 검증의 주체를 자임하며, 그 주장 또한 일상적 언어와 친숙한 형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저널리즘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오히려 저널리즘을 구성하는 자격 요건과 책임 규범, 그리고 무엇이 정당한 뉴스 실천인가를 가르치는 승인 기준은 더 불투명해진다. 작금의 저널리즘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단순히 새로운 매체의 부상이나 전통 언론의 위기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누가 저널리즘을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이 ‘무엇이 저널리즘인가’라는 질문과 접합되어, 저널리즘 장의 경계와 정당성의 승인 질서를 다시 묻게 만든다(Benson, 2006; Dickinson, 2008).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공간에서 확산되어 온 소위 ‘저널리즘적 실천’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전통 언론 바깥에서 단순히 뉴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설을 덧붙이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성, 검증, 출처 제시, 전문가 인용, 현장성의 표상 등 전통 저널리즘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형식적 문법과 권위의 기호를 선택적으로 차용하고 재조합하면서, 자신들의 실천을 공적 정보 제공의 정당한 형식으로 제시하려 한다. 문제는 단순한 플랫폼 확장이나 새로운 콘텐츠 형식의 등장이나, 저널리즘의 경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 어떻게 저널리즘의 상징 자본을 호출하고 전유하는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명명하기보다, 저널리즘 장과 플랫폼 기반 실천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저널리즘적 실천’ 혹은 경계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종명, 2022).

더욱이 이러한 실천은 전통 저널리즘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모사하면서도, 그 핵심 절차와 책임의 배치를 동일하게 수반하지는 않는다. 특히 제보-취재-보도로 이어지는 저널리즘의 기본 수행 과정 가운데 취재와 검증의 무게가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방식은 플랫폼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그 결과 사실성의 입증과 검증의 부담은 생산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전가되며, 수용자는 제시된 정보의 진위를 스스로 판별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정파적 진실’은 참과 거짓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진실의 승인 자체가 검증 절차보다 진영 정렬과 해석 공동체의 감각 속에서 조직되는 양식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작금의 문제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만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 어떤 위치의 발화가 ‘사실적’이고 ‘공적인’ 것으로 승인되는가를 둘러싼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생성형 AI의 확산은 새로운 저널리즘 행위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문제로 단순화될 수 없다. 저널리즘이 스스로를 정당화해 온 형식적 장치와 승인 조건을 기술적으로 재조직하는 문제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는 기사 작성, 요약, 편집, 제목 생성, 추천, 번역 등 뉴스 생산의 여러 국면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그 핵심적 함의는 단순한 생산 효율화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인용, 객관주의 전통, 전문가 활용, 수치와 자료의 배열, 뉴스 문체의 구성, 출처 제시와 같은 저널리즘의 형식적 지표들을 복제·재생산·자동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엇이 저널리즘처럼 보이는가, 무엇이 사실성과 권위의 외양을 획득하는가를 둘러싼 조건 자체를 바꾸

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는 독립된 저널리즘 행위자라기보다, 전통 언론과 플랫폼 기반 실천 행위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매개이자, 객관주의 문법을 저비용으로 재생산하는 장치이며, 더 나아가 저널리즘 승인 질서에 압력을 가하는 인프라적 층위로 이해되어야 한다(Carlson, 2018; Lewis et al., 2019; Simon, 2022).

이처럼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기반 실천과 생성형 AI의 확산이 맞물리는 현재의 상황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단지 ‘가짜뉴스의 증가’나 ‘전통 언론의 신뢰 하락’이라는 현상적 기술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저널리즘의 정의와 경계, 객관주의와 전문직주의의 규범, 그리고 사실성과 권위가 어떠한 형식과 절차를 통해 승인되어 왔는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게 만드는 인식론적 위기이다. 다시 말해, 작금의 쟁점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떠한 규범과 절차 속에서 사실을 말할 자격을 인정받는가, 그리고 그 자격이 어떤 형식적 문법과 사회적 승인 과정을 통해 유지되어 왔는가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널리즘 장 논의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저널리즘의 경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흔들리며 그 정당성의 기준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 개념은 진실 추구, 공적 책무, 검증, 독립성과 같은 덕목이 어떻게 장 내부의 상징 자본과 정통성의 원리로 조직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Benson, 2006; Dickinson, 2008). 여기에서 경계 작업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여, 전통 언론과 플랫폼 기반 실천 행위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말해질 수 있는가를 둘러싼 경쟁과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본다(Lewis, 2012; Carlson, 2016). 또한, 저널리즘의 객관주의를 단지 규범적 이상이 아니라 사실성과 권위를 조직하는 형식적 기술이자 수행의 문법으로 읽는 관점을 접목해, 오늘날 저널리즘의 승인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전유되고 재배열되며 재구성되는지를 검토한다(김사승, 2008; 김경모, 2012).

이에 따라 두 가지 쟁점에 연구의 문제 의식을 정박한다. 첫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실천 행위자들이 전통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문법과 전문직주의의 권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차용하고 재조합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구축하는가이다. 둘째, 생성형 AI가 그 문법을 복제·자동화하는 기술적 장치로 작동하는 가운데, 저널리즘의 승인 질서가 어떠한 경계 작업과 정통성 투쟁을 통해 다시 짜이고 있는가이다. 이때 핵심은 생성형 AI가 저널리즘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그것의 개입이 저널리즘 실천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출처 추적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정정 가능성, 인간의 최종 책임과 편집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가시화되는가가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저널리즘을 직업이나 조직의 범주로 환원하는 익숙한 이해에서 벗어나, 장의 경계에서 정당성 경쟁과 승인 투쟁을 수행하는 실천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물꼬를 트고자 한다. 플랫폼과 생성형 AI가 매개하는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전통과 전문직주의의 권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또 어떤 조건 아래에서 다시 승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틀을 잡는다. 궁극적으로 연구의 의의는 저널리즘의 미래를 기술 낙관론이나 기술 비관론의 단순한 대립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닌, 무엇이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승인될 수 있으며 또 승인되어서

는 안 되는가를 묻는 규범적·제도적 질문 속에서 재구성하는 데 있다.

2. 저널리즘 장, 경계 작업, 승인 질서

1) 저널리즘 장

저널리즘을 둘러싼 작업의 혼란을 이해하는 단서로, 저널리즘을 단순한 직업군이나 매체 형식의 총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field)으로 파악하는 접근이 유효하다(Bourdieu, 1994; Benson, 2006). 장이란 단지 언론사와 기자들과 같은 행위자들이 모여 있는 제도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Dickinson, 2008). 공적 정보의 생산과 유통, 해석과 검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상이한 자원과 권위를 바탕으로 위치를 점하고 경쟁하는 관계적 공간이며, 동시에 무엇이 정당한 뉴스 실천인가를 가르는 규칙과 위계가 작동하는 구조에 가깝다(Benson, 2006; Dickinson, 2008). 부르디외의 문제의식이 지금에도 유효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저널리즘은 어떤 텍스트 형식만으로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 아래서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절차와 규칙이 정당한 것으로 통용되는가, 어떤 상징 자본이 신뢰와 권위로 전환되는가를 둘러싼 사회적 투쟁 속에서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Bourdieu, 1994; Benson, 2006). 저널리즘을 장으로 본다는 것은 따라서 개별 기사나 조직의 속성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성립하는 보다 넓은 관계망과 위계,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정당성의 원리를 함께 살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Benson, 2006; Dickinson, 2008).

보다 직접적으로, 부르디외가 설명하는 저널리즘 장은 서로 다른 자본을 지닌 행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경쟁하는 공간이다(Bourdieu, 1994). 이때 중요한 것은 장이 관계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의미와 권한은 고정된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의 차이와 거리, 그리고 장 전체의 분포 속에서 위치되고 규정된다(Bourdieu, 1994; Benson, 2006). 저널리즘 장에서 문제 되는 자본 역시 단순하지 않다. 경제 자본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널리즘에서 강조되고 결정적인 것은 공적 신뢰, 전문성, 독립성, 진실 추구의 태도, 취재 역량과 같은 상징 자본의 축적이다(Dickinson, 2008). 다시 말해 저널리즘은 단순히 많이 팔리거나 많이 노출되는 정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발화라는 인정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부르디외가 저널리즘의 문제를 단지 콘텐츠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장의 구조와 자본 분포의 문제로 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저널리즘의 위기란 곧 텍스트의 위기이기 이전에 신뢰와 권위가 어떻게 축적되고 배분되는가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부르디외의 장 이론이 저널리즘 연구에 특히 유용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저널리즘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동시에 사고하게 만드는 데 있다. 장은 언제나 자기 고유의 규칙과 위계를 지니며 상대적 자율성을 지향하지만, 결코 외부 세계와 분리된 순수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Bourdieu, 1994). 저널리즘 장 역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기술 환경, 시장 압력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충돌하면서 작동한다(Benson, 2006; Dickinson, 2008). 따라서 저널리즘 장의 핵심

문제는 자율성 그 자체라기보다, 어떤 외부 논리가 어느 정도까지 저널리즘의 내부 규칙을 재조정하는가에 있다(Bourdieu, 1994; Benson, 2006). 부르디외가 저널리즘에 대해 강한 비판적 어조를 취했던 것도, 저널리즘 장이 시청률, 속보성, 경쟁, 선정성의 논리에 점점 더 종속되면서 스스로의 자율성을 잠식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오늘날 플랫폼화와 자동화, 데이터 지표 중심의 뉴스 생산 환경에서도 유효하다. 결국 저널리즘 장은 자율적 규범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외부 논리의 침투를 늘 감당해야 하는 반자율적 공간이며, 바로 그 긴장이 저널리즘 장의 구조를 규정한다.

이러한 자율성과 타율성의 긴장은 부르디외가 말한 독사(doxa), 일루지오(illusio), 노모스(nomos)의 문제와도 이어진다. 독사란 장 안에서 거의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과 상식의 체계를 뜻하고, 일루지오는 그 게임이 가치 있다고 믿으며 장에 참여하게 만드는 암묵적 헌신을 가리키며, 노모스는 그 장을 작동시키는 고유한 규칙의 원리를 뜻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장 역시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한다(Bourdieu, 1994; Benson, 2006). 저널리즘 장에서 독사는 진실 추구, 검증, 공적 책무, 독립성, 객관성 같은 규범이 저널리즘을 저널리즘이게 한다는 믿음으로 나타난다(Deuze, 2005; Dickinson, 2008). 일루지오는 기자와 편집자, 뉴스룸 종사자들이 그러한 규범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자신이 그 규범을 수행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태도에서 확인된다(Deuze, 2005). 노모스는 취재, 편집, 반론권 보장, 정정, 출처 관리, 편집권의 독립, 윤리 강령 같은 절차적 규칙 속에서 제도화된다(Dickinson, 2008; Deuze, 2005). 이런 점에서 저널리즘 장은 단순한 조직의 집합이 아닌, 그 게임의 가치와 규칙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널리즘 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지 산업이 어려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독사와 일루지오, 노모스의 설득력이 함께 약화되거나 재조정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저널리즘 장은 전통적 미디어 생산자 지형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전통적 저널리즘 미디어 생산자, 다시 말해 기자·편집자·뉴스룸은 단지 뉴스를 생산하는 기술 집단이 아니라, 검증, 독립성, 공공성, 객관성, 윤리 같은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권위를 축적해 온 집단이라 할 것이다. 저널리즘 장 안에서 이러한 규범은 단순한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상징 자본의 원천으로 기능한다(Benson, 2006). 다시 말해 누군가가 저널리즘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은 뉴스 형식을 표면적으로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않는다(Dickinson, 2008). 그러한 발화가 취재와 편집, 반론권, 정정, 출처 관리와 같은 절차적 장치를 동반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신뢰와 결부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한다(Deuze, 2005). 이 점에서 저널리즘 장은 결과물의 외양보다 절차와 책무, 자율성과 권위의 수행이 축적되는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Deuze(2005)가 저널리즘을 공공성, 객관성, 자율성, 즉시성, 윤리성으로 조직되는 전문직 이데올로기의 집합으로 본 문제의식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저널리즘 장의 내부란 단지 기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한 직업적 자기이해와 규범적 책무의 체계가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위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논의는 저널리즘 장을 규범적 이상이 지배하는 안정된 공간으로 국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저널리즘 장이 상업화와 경쟁, 속보성과 주목경제의 압력 속에서 점점 더

타율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경고는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현실적인 함의를 갖는다. 플랫폼 최적화, 클릭 지표, 체류 시간, 실시간 반응, 추천 시스템과 같은 외부 논리는 단지 뉴스의 유통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뉴스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제목과 형식이 더 가시적일 것인가, 어떤 말하기가 더 경쟁력 있는가를 재조정하기에 이른다. 부르디외가 말한 타율성의 침투는 오늘날 시장과 플랫폼, 데이터 지표의 언어로 다시 번역, 접합된다. 최근 저널리즘 장 연구가 디지털 전환 속에서 장 개념을 다시 호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의 문제는 더 이상 전통적 언론사의 조직 분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외부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저널리즘 장의 독사와 노모스를 재조직하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확장된다(Maares & Hanusch, 2022). 이런 점에서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 논의는 이론적 유산이 아닌, 오늘의 플랫폼 국면을 읽기 위한 여전히 유효한 출발점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널리즘 장을 단순히 전통 언론 내부의 질서를 설명하는 데 남겨두는 것을 넘어 그 질서가 왜 지금처럼 불안정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저널리즘 장 논의를 권위, 정통성, 경계 형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보다 엄밀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Maares & Hanusch, 2022). 이는 오늘의 저널리즘 위기를 단순히 “미디어 환경이 변했다”는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에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상징 자본과 절차적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떤 새로운 행위자와 형식, 기술적 매개를 통해 증폭되고 있는가를 살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시 말해 작금의 저널리즘 장은 안정된 중심과 주변의 구조라기보다, 정당성의 원천 자체가 문제화되는 다층적 경쟁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누가 사실과 해석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권한이 어떤 사회적 조건 아래 인정되는가는 더 이상 전통 언론 내부의 자기정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저널리즘 장의 문제는 이제 장 내부의 위계뿐 아니라 장 경계에서 벌어지는 정당성 경쟁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방식으로 해독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저널리즘 장은 공적 정보 생산을 둘러싼 규범과 자본, 절차와 권위, 자율성과 타율성이 관계적으로 조직되는 공간이다. 전통적 저널리즘 미디어 생산자들은 오랫동안 검증, 독립성, 공공성, 책임의 원리를 통해 상징 자본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닌, 정치-경제-기술 환경의 변동 속에서 끊임없이 압박받는다. 부르디외가 보았던 저널리즘 장의 핵심 문제, 곧 자율성의 약화와 타율적 논리의 침투는 오늘날 플랫폼화와 자동화, 주목경제의 확산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복된다. 저널리즘 장을 살핀다는 것은 더 이상 전통 언론의 제도적 구조를 서술하는 일이 아닌, 무엇이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어떤 조건 아래서 그 권위가 유지되거나 침식되는지를 묻는 작업이 된다.

2) 경계 작업

저널리즘 장의 역동성을 보다 섬세하게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계 작업(boundary work)’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경계 작업은 무엇이 저널리즘인가를 둘러싼 구획, 배제, 포섭, 위계화의 실천을 뜻한다(Carlson, 2016; Lewis, 2012). 이때 중요한 것은 경계가 미리 주어진 본질적 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계는 언제나 누가 내부에 속하는지, 어떤 행위가 저널리

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형식과 절차가 공적 발화로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지속적인 주장과 반박, 제도적 규율과 담론적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다시 말해 경계 작업은 저널리즘 장 바깥의 타자를 몰아내는 구획인 것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이 스스로의 의미를 갱신하고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저널리즘을 둘러싼 각종 공적 담론에서는 단순히 저널리즘을 설명하는 담론에 국한되지 않고 누가 정의권을 갖는지, 무엇이 허용 가능한 실천인지, 어디까지가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말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경계 협상의 장이 논의된다(Carlson, 2016).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널리즘은 전문적 통제와 개방적 참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스스로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조정해 왔다(Lewis, 2012). 그런 점에서 경계 작업은 단지 저널리즘의 외연을 둘러싼 부수적 논쟁이 아니라, 저널리즘 장 그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경계 작업의 특징은 그것이 언제나 이중적이라는 데 있다. 한편의 경계 작업은 저널리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방어하기 위해 외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행된다. 예컨대 시민기자, 대안매체, 플랫폼 크리에이터, 정파적 논객, 자동화 기술 등은 종종 ‘저널리즘이 아닌 것’으로 호명되며, 이 배제의 언어를 통해 전통적 저널리즘은 스스로의 규범적 우위를 재확인한다(Carlson, 2016; Pedersen et al., 2024; Ihlebæk & Figenschou, 2024). 그러나 다른 한편의 경계 작업은 내부를 정렬하고 위계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다시 말해 경계는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만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 내부의 중심과 주변, 정통과 비정통, 진지함과 경박함, 공공성과 상업성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그어지고 수정된다(Banjac & Hanusch, 2023; Ivask, 2026). 이 지점에서 경계 작업은 단순한 타자화를 넘어, 누가 더 ‘본래적’이고 ‘정통한’ 저널리스트인가를 가리는 자기규율의 언어가 된다. 저널리즘 장에서 어떤 취재 영역, 어떤 스타일, 어떤 말하기 방식이 더 높은 상징 자본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내부의 경계 작업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경계 작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외부 도전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 내부의 위계와 정체성이 어떻게 담론적으로 조직되는지를 함께 읽는 일이다(Lewis, 2012; Carlson, 2016; Ivask, 2026).

이 점은 최근의 경험연구에서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Banjac와 Hanusch(2023)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부 기자와 라이프스타일 기사를 비교하면서, 경계 작업이 단순히 외부를 배제하는 차원을 넘어 내부의 위계와 정당성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설명했다. 정치 저널리즘은 공적이고 진지하며 더 높은 전문성을 지닌 영역으로, 라이프스타일 저널리즘은 상대적으로 주변적이고 덜 엄정한 영역으로 묘사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경계가 일방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치 기자와 라이프스타일 기자 모두 서로를 향해 자기 확장과 자기 배제, 그리고 타자화를 동시에 수행했으며, 동시에 경계의 흐릿함도 자인한다. 곧 경계 작업은 외부의 침입에 대응하는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장 내부의 정당성 위계를 다시 서열화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이런 결과는 저널리즘 장의 중심에 가까운 영역일수록 더욱 강한 정통성 언어를 구사하고, 주변적 위치에 놓인 영역일수록 그 언어를 수용하거나 전복하거나 재전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경계 작업은 저널리즘 장의 위계 질서를 재생산하는 기제이면서 동시에 그 위계가 흔들리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감지 장치이기도

하다(Banjac & Hanusch, 2023).

디지털 전환 이후 경계 작업은 더욱 복합적인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계가 주로 직업적 자격, 조직 소속, 편집 절차, 윤리 강령 등 비교적 제도화된 기준을 통해 유지되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규칙, 데이터 지표, 실시간 반응성, 조직 통합, 속도 경쟁과 같은 요소들이 그 경계의 성격을 함께 바꾸고 있다. Ivask의 연구(2026)는 에스토니아 뉴스룸에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다섯 차례 인터뷰를 추적하며, 기자들이 전문적 경계를 어떻게 협상해 왔는지를 장기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의 핵심은 경계가 단순히 ‘침식’되었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상징적, 인식론적, 조직적, 시간적 경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동했고, 기자들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주변화, 독창성과 품질을 둘러싼 논쟁, 통합 뉴스룸의 일상화, 지표(metrics)의 압박 속에서도 검증과 공공적 가치만큼은 끝까지 방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계 작업이 변화에 저항하는 낡은 방어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지를 재조정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전환은 경계의 소멸이라기보다, 경계의 이동과 재배치를 촉진한다(Ivask, 2026).

플랫폼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계 작업이 더욱 노출되고, 또 더욱 자주 도전받는다. Bastin과 Bert-Erboul의 연구(2025)는 프랑스 음악 저널리즘의 트위터 활동을 분석하면서, 기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도 여전히 영향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경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 권위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 과정을 ‘bounded trade’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자들이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거래 가능한 자원처럼 활용하지만, 그 거래의 범위와 효력은 플랫폼 구조와 타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전문적 중개자임을 주장하지만, 플랫폼 위에서는 그 주장이 자동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참여자들과의 경쟁과 응답 속에서 계속 시험된다. 이런 맥락에서 플랫폼은 저널리즘의 경계 작업을 무력화하는 공간이라기보다, 그 경계 작업이 더 자주 가시화되고 더 빠르게 반박당하는 공간에 가깝다. 전통적 뉴스룸 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던 권위의 언어가 플랫폼 위에서는 훨씬 더 불안정하고 협상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Bastin & Bert-Erboul, 2025).

이처럼 플랫폼이 경계 작업의 장을 바꾸어 놓는다면, 대안매체와 독립 플랫폼 행위자들의 부상은 그 경계 작업의 정치적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Pedersen과 동료들의 북유럽 연구(2024)는 기존 언론 조직의 편집 책임자들이 대안매체의 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읽어냈다. 곧 “우리가 진짜 기자들이다”, “아직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압박받고 있다”는 식의 담론이다. 이들은 대안매체를 저널리즘의 내부로 포섭하기보다, 분명히 외부화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잠재적 파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한 불안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 주류 언론은 대안매체를 아직은 ‘진짜 저널리즘’이 아닌 것으로 위치시키지만, 그 존재가 장 전체의 규칙과 수용자 감각, 기자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코 사소한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점은 경계 작업이 단순한 정의 싸움이 아니라, 장의 안정성과 미래의 균열 가능성을 둘러싼 정동적·전략적 실천임을 말해준다(Pedersen et al., 2024).

같은 맥락에서 Ihlebæk와 Figenschou의 전략적 행위장 접근은 경계 작업을 관계 차원으로

판별한다. 저널리즘을 단순히 전통적 저널리즘 생산자(incumbents)와 새로운 플랫폼의 도전자(challengers)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자원과 사회적 기술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공간으로 읽는다(Ihlebaek & Figenschou, 2024). 노르웨이 대안매체를 분석한 최근의 논의는, 대안매체들이 자신을 단순한 외부자가 아닌 주류 저널리즘이 본래 규범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등장한 ‘교정자’로 묘사하는 경향을 짚었다(Ihlebaek & Figenschou, 2026).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전자들이 저널리즘의 권위를 외부에서 파괴하려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진실에 가깝다”, “우리가 더 본래적 규범을 지킨다”는 언어를 통해 저널리즘의 이름 자체를 재전유한다는 점이다. 즉 오늘의 경계 작업은 더 이상 주류 언론이 바깥을 배제하는 일방적 과정이 아니다. 도전자들 역시 저널리즘의 문화적 권위와 정당성 언어를 적극적으로 호출하며, 누가 ‘진짜’ 언론인가를 둘러싼 재정의의 시도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계 작업은 배제의 정치인 동시에, 정당성 전유의 정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쟁이 사실성이나 진실의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첨예하게 충돌한다. Vaarala는 핀란드의 독립 유튜브 팟캐스트를 분석(2025)하면서, 이들이 레거시 저널리즘의 진실 주장과 인식론적 권위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장면을 포착했다. 여기서 도전자들은 단순히 주류 언론의 정치적 편향을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누가 진실의 해석권을 갖는가, 누가 공적 사실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경계 투쟁을 수행한다. 결국 오늘의 경계 작업은 ‘누가 기자인가’라는 신분 문제를 넘어,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떤 말하기가 객관성의 형식으로 읽히는가’를 둘러싼 인식론적 경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이후 플랫폼 기반 저널리즘적 실천과 객관주의 문법의 전유를 논할 때 결정적인 해석 단서가 된다. 저널리즘의 권위가 더 이상 조직 소속만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계 작업은 곧 사실성과 권위의 문법을 둘러싼 경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경계 작업은 이제 법과 정책의 차원에서도 수행된다.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을 둘러싼 최근 논의는 ‘저널리즘’과 ‘뉴스 출판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호하려는 시도가, 역설적으로 무엇을 저널리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Kira와 Townend(2025)는 이 법이 저널리즘 보호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행위자와 매체가 그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공익과 미디어 자유 측면의 새로운 난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경계 작업이 더 이상 직업 집단 내부의 담론적 실천에만 머무르지 않고, 플랫폼 규제와 법적 예외, 면책의 범주를 둘러싼 제도적 실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다시 말해 저널리즘의 경계는 이제 뉴스룸 안에서만 그어지지 않는다. 국가와 법, 플랫폼 규제 체계도 누구를 언론으로 간주할 것인지, 어떤 발화를 공익적 저널리즘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만큼 경계 작업은 오늘날 더 정치적이고 더 제도적인 층위를 갖는다.

요컨대, 경계 작업은 저널리즘 장의 주변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부차적 논쟁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스스로의 의미와 권위를 갱신하는 핵심 실천이다. 그것은 외부 도전자를 배제하는 언어로 수행되기도 하고, 내부 위계를 정렬하는 언어로 작동하기도 하며, 플랫폼 환경에서는 더 협상적이고 노출된 방식으로 전개되고, 대안매체와 독립 플랫폼 행위자들에 의해 역으로 전유되

기도 한다. 나아가 오늘의 경계 작업은 법과 정책, 플랫폼 거버넌스의 수준까지 확장되면서, 무엇이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승인될 수 있는가를 둘러싼 경쟁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계 작업은 더 이상 단순한 ‘직업 방어’의 언어로 납작하게 논의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저널리즘 장의 불안정성, 정통성의 재서열화, 그리고 진실과 권위를 둘러싼 경쟁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3) 승인 질서

‘승인 질서’는 저널리즘 장과 경계 작업의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어떤 행위자와 어떤 형식, 어떤 절차와 어떤 책임 구조가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묻기 위한 문제제기로서 활용된 용어다. 이는 저널리즘 장의 정통성 구조와 경계 작업의 움직임에 경유하여, 무엇이 정당한 뉴스 실천으로 인정되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가를 탐문하려는 출발이 된다. Deuze(2005)가 저널리즘을 공공성, 객관성, 자율성, 즉시성, 윤리성으로 조직되는 전문직 이데올로기로 보았고, Carlson(2016)이 저널리즘의 의미가 정의와 경계 작업,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설명했을 때, 이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저널리즘인가’라는 정의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정의가 어떤 사회적 승인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얻는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승인 질서를 말한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내부와 외부의 가르는 선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어떠한 규범적 언어와 제도적 형식,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통해 유지되어 왔는지를 다시 묻는 일이 될 수 있다.

승인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오래된 축 가운데 하나는 저널리즘의 전문직 이데올로기와 객관성의 수행이다. 저널리즘은 오래전부터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 공적 사안을 다루는 데 필요한 독립성, 균형, 검증, 절제, 윤리적 책임을 갖춘 실천으로 스스로를 이해해 왔다(Deuze, 2005). 그러나 이 질서는 애초부터 추상적 가치 선언만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Tuchman(1972)은 이미 객관성을 진실의 순수한 반영이라기보다, 뉴스 생산자들이 직업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 의례’라 설명한 바 있다. Boudana(2011)는 객관성을 단순한 철학적 상태가 아니라 평가 가능한 기준과 실천을 수반하는 수행으로 재정의하면서, 객관성이 저널리즘 장 안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판정되는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맥락에서 승인 질서는 결국 무엇이 객관적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어떤 형식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보일 자격’을 획득하는가를 둘러싼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권위는 사실을 정확히 서술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는 형식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인 질서는 단지 가치의 선언이 아니라, 절차와 형식, 그리고 책임의 결합으로 이해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출처를 밝히는 방식,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관행, 반론을 반영하는 절차, 정정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방식, 편집권의 독립을 어떻게 주장하고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모두 승인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Maares, Löhmann, Hanusch, Nölleke(2025)의 연구가 자율성, 객관성, 투명성을 오늘날 저널리즘의 권위와 정당성에 필수적인 가치로 다루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이해되거나 실천되지 않는다고

지적인 것은 의미있는 접근이 된다. 무엇보다도 정치·경제 보도에서는 객관성이 특히 강하게 강조되는 반면, 생활·스포츠와 같은 이른바 연성 뉴스(soft news) 영역에서는 보다 주관적 관점이 허용된다. 이런 연구는 승인 질서가 쇠퇴한 과거의 유물이라기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뢰를 조직하는 언어와 실천의 토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여기에서 승인 질서가 최근의 인식론적 권위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Bartsch 등(2025)은 디지털 공론장에서 인식론적 권위란 주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 권위인 과학과 저널리즘이 도전받는 동시에 인플루언서, 대안매체, 집단 지성, 모바일 앱, AI와 같은 새로운 행위자와 기술들이 권위를 주장하거나 권위로 인식되는 상황을 살폈다. 또한 Neuberger 등(2023)은 ‘지식 질서’의 디지털 전환을 논하면서, 오늘날의 위기가 단순한 허위정보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지식이 생산·유통·평가되는 기본 질서의 재편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경유해 보면, 승인 질서는 저널리즘 내부의 윤리 규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누가 지식의 중개자이자 해석자로 인정받는가를 둘러싼 보다 넓은 질서의 일부로 접근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승인 질서가 더 이상 기자 집단 내부의 합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최근 연구들은 수용자들이 저널리즘의 정당성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uo, Wang, Shen(2026)은 수용자들이 저널리즘이 수행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규범적 기능과 실제 수행에 대한 평가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존재하며, 그 간극이 클수록 미디어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는 승인 질서가 더 이상 생산자의 자기정의만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즉 저널리즘의 정당성은 이제 수용자들의 기대, 불신, 반응,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재시험되며, 그 과정에서 승인 질서는 훨씬 더 취약하고 가시적인 것이 된다.

요컨대 승인 질서는 하나의 닫힌 규범 목록이 아니라, 직업적 이데올로기, 절차적 수행, 수용자 기대, 법제 환경, 플랫폼 구조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수정되는 질서다. 그런 점에서 승인 질서는 오늘날 저널리즘의 위기를 단지 ‘신뢰 하락’이나 ‘플랫폼 경쟁’으로 축소하지 않고, 무엇이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수용되고 정당화되는가의 문제로 다시 읽기 위해 요구되는 개념이다.

3. ‘저널리즘적 실천’과 플랫폼 국면

1) ‘저널리즘적 실천’의 개념화

태동부터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사·정치 콘텐츠 생산을, 저널리즘의 범주 안에 포함할 수 있는지 혹은 저널리즘의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실천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다(유용민, 2019; 양선희, 2020; 마정미, 2020).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뉴스 유사 콘텐츠 생산이 전통적 저널리즘의 외양과 권위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면서도,

그 절차와 책임 구조를 동일한 수준에서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이종명, 2022).

그런 점에서 이종명(2022)은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호명보다,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저널리즘적 실천’이라는 표현을 주장해 왔다. 이는 플랫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사·정치 콘텐츠 생산을 곧바로 완결된 저널리즘으로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단순한 비저널리즘적 외부로 밀어내지 않는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즉 플랫폼 공간의 발화가 전통적 저널리즘의 형식, 문법, 상징 자본을 선택적으로 호출하는 실천이라는 점을 드러내면서도, 그 실천이 저널리즘 장 내부의 절차적 책임과 직업 윤리를 동일한 수준에서 떠안고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이종명, 2022).

이와 같은 개념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플랫폼 공간의 실천이 단지 전통 뉴스의 유통 채널 확장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뉴스를 실어 나르는 중립적 통로가 아니라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가려지는지, 어떤 말하기 방식이 더 주목을 얻는지, 어떤 형식이 더 널리 순환하는지를 규정하는 구조적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전통적 뉴스 형식을 단순히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가시성 규칙과 반응 구조에 맞추어 저널리즘의 외양과 리듬을 다시 조정하는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앞서 논의한 경계 작업과 직결된다.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전통 저널리즘의 외부에서 단순히 의견을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공적 신뢰와 상징 자본을 활용하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경계 실천의 성격을 가진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것은 단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저널리즘 장의 경계와 승인 질서가 어디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징후적 현상이다.

2) 플랫폼화된 뉴스노동과 실천 주체의 재구성

이처럼 플랫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저널리즘적 실천’을 이해할 때, 그것을 단지 새로운 콘텐츠 형식이나 유통 채널의 변화로만 파악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실제로 누가, 어떤 조건 아래, 어떠한 노동을 수행하며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말하는가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뉴스룸 질서에서 기자의 정체성은 조직 소속, 출입처, 편집 체계, 동료 집단, 직업 규범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환경은 이러한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저널리즘 노동을 훨씬 더 분산적이고 가시성 중심적이며 기업가적인 형태로 재배치하고 있다(Salamon et al., 2026; Cohen, 2019).

이 과정에서 실천 주체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기자’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 에디터, 독립 뉴스 크리에이터, 심지어 자동화된 게시 시스템을 운영·감독하는 인력까지 뉴스 생산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뉴스 조직 종사자와 독립 뉴스 크리에이터가 모두 플랫폼화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며, 수익 모델의 불안정, 플랫폼 의존,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압박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고 지적한다(Salamon et al., 2026). 그렇다면 이 새로운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탐문하게 된다. 최근의 경향을 볼 때, 전통적 전문직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화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플랫폼화된 뉴스노동의 수행자는 여전히 공공성, 신뢰, 정보 제공, 사실 확인 같은 저널리즘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자

기브랜딩, 팔로워 관리, 플랫폼별 포맷 최적화, 데이터 해석, 후원 및 수익화, 감정적 친밀성의 연출 같은 창작자 경제의 논리를 함께 내면화한다.

이 대목에서 기업가주의와 자기책임의 논리가 동원될 수 있다. Cohen(2015)과 Singer(2018)가 지적했듯, 기업가적 저널리즘은 혁신과 자율성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노동을 개인의 창의성과 자기관리 문제로 전가하는 구조와 맞물리기 쉽다. 따라서 플랫폼화된 뉴스 노동을 논할 때 자율성의 수사, 즉 (표현의/언론) ‘자유’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그 자유가 어떤 불안정성과 교환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플랫폼 환경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전통적 뉴스노동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계승하면서도 다른 일부는 플랫폼 논리에 맞게 변형하는 하이브리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기저작가를 판정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노동 조건이 어떤 실천 주체를 만들어내고, 그 주체가 왜 저널리즘의 언어를 계속 필요로 하는가를 해명하는 일이다.

3) 플랫폼 논리와 저널리즘 형식의 재조정

이처럼 플랫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저널리즘적 실천’을 이해하려면 플랫폼을 단순한 유통 채널이나 부가적 접점으로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은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어떤 형식이 더 주목을 얻는지, 어떤 리듬과 어조가 선호되는지를 규정하는 구조적 환경으로 작동한다. van Dijk와 Poell(2013)이 말한 소셜 미디어 논리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플랫폼 위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전통적 뉴스 형식을 단순히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논리에 맞추어 형식 자체를 다시 조정하는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논리는 우선 콘텐츠의 선택 기준과 편집 판단을 재조정한다. 이용자 반응, 가시성 지표, 추천 알고리즘, 클릭 가능성, 영상 적합성은 뉴스 가치 판단과 편집 선택을 끊임없이 교섭하게 만든다(García-Perdomo, 2024). 이는 플랫폼 논리가 제목이나 썸네일의 변화만이 아니라, 애초에 무엇을 내보낼 것인가를 가르는 단계부터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플랫폼 논리는 또한 어조와 스타일을 바꾼다. 전통적 저널리즘이 절제, 거리두기, 중립적 서술을 중시해 왔다면, 플랫폼 환경에서는 친밀성, 직접성, 감정적 호소, 개인화된 말하기가 더 큰 가시성을 얻기 쉽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전통적 뉴스 형식의 전면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뉴스 형식이 플랫폼 가시성의 규칙에 맞추어 조정되며, 그 조정은 매체 유형과 조직 문화, 콘텐츠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강도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Steiner, 2020).

플랫폼 논리는 시간성과 편집권의 위치도 바꾼다. 완결된 기사보다 카드뉴스, 쇼츠, 릴스, 하이라이트 클립처럼 피드의 흐름 속에서 다시 포장되고 분절되는 단위들이 뉴스 유통의 주요 형식이 되기 쉽고, 동시에 편집과 배포는 인간 편집자, 플랫폼 규칙, 자동화된 게시 도구, 데이터 피드백이 결합된 혼합적 과정으로 확장된다(García-Perdomo, 2024; Petruccio et al., 2025).

결국 플랫폼 환경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전통적 뉴스 형식과 플랫폼 친화적 형식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작동한다. 플랫폼은 저널리즘의 형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더 가시성

중심적이고 더 개인화되며 더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치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곧 차용과 책임의 비대칭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경계 실천으로서의 차용과 책임의 비대칭

플랫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저널리즘적 실천’의 핵심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저널리즘의 권위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그 권위를 구성해 온 형식과 언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한다는 점이다. 이 실천은 자신을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개인 방송으로 제시하기보다, 사실을 전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공적 사안을 설명한다는 자기서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플랫폼 위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저널리즘의 형식과 문화적 권위를 둘러싼 적극적인 경계 실천으로 봐야 한다(Lewis, 2012; Carlson, 2016).

그러나 이 차용은 비대칭적이다. 플랫폼 행위자들은 저널리즘의 권위를 상징하는 형식적 표지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지만, 그 형식을 떠받치는 절차적·제도적 책임 구조까지 동일하게 수행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이종명(2022)의 연구에서 밝혔듯, 기자 집단의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판단 유보는 정치적 편향이나 선정성에만 있지 않았다. 오히려 취재와 검증, 반론권 보장, 정정, 책임 귀속과 같은 절차적 차원에서 전통적 저널리즘과 다른 점이 분명하다는 데 있다.

이 점은 플랫폼 환경에서의 신뢰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오해정과 최지향(2022)은 유튜브 뉴스채널 이용자들의 신뢰 형성 과정에서 공정성, 정확성, 완전성과 같은 뉴스품질 요소가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한편, 정파적 기대와의 부합도 함께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는 플랫폼 위의 뉴스 신뢰가 전통적 뉴스품질의 형식적 지표들과 정파적 기대 충족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형성됨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플랫폼 위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저널리즘의 형식과 권위를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조합함으로써 저널리즘 장 내부의 승인 질서를 위협하거나 충돌하는 실천이다. 그리고 형식적 지표가 그 절차적 기반과 분리된 채로도 강한 권위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러한 형식적 장치들이 생성형 AI에 의해 얼마나 손쉽게 복제되고 자동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4. 객관주의 문법과 사실성의 형식적 지표

1) 객관주의 문법의 재이해: 규범이 아니라 수행과 기술

저널리즘을 둘러싼 객관주의 논의는 오랫동안 언론이 따라야 할 핵심 규범, 곧 사적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려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Deuze, 2005). 그러나 객관주의를 이러한 선언적 규범으로만 볼 경우, 그것이 실제 뉴스 생산의 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왜 오랫동안 저널리즘의 핵심 정당화 자원으로 기능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공백이 생긴다. 객관주의는 단순한 도덕적 이상이 아닌 저널리즘이 스스로를 다른 유형의 발화와 구별하고 공적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절차와 형식의 집합이기도 하다(Tuchman, 1972; Boudana, 2011).

Tuchman(1972)은 객관성을 진실의 직접적 반영이라기보다 기자들이 자신의 보도가 편향되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 의례’로 설명했다. 핵심은 객관성이 일종의 내면 상태나 순수한 가치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뉴스 생산 관행으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인용의 병치, 상반된 견해의 함께 제시, 사실과 논평의 분리, 공식 자료와 제도적 출처의 활용은 모두 객관성의 혼적으로 기능한다.

Boudana(2011)는 이러한 문제를 한층 더 정교화하여 객관성을 평가 가능한 기준과 실천을 동반하는 수행으로 정의했다. 객관성은 ‘객관적인 개체’로서 기자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직된 보도 방식, 자료 배열, 출처 운용, 서술 태도의 구조 등 저널리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객관주의는 저널리즘 장 내부의 행위자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장 외부의 행위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차용 가능한 문법이 된다.

한편 Deuze(2005)는 객관주의를 더 넓은 직업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위치시킨다. 저널리즘은 공공성, 객관성, 자율성, 즉시성, 윤리성으로 구성되는 집합적 자기이해를 통해 사회 안에서 배타적 역할과 지위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객관주의 문법을 수행과 기술로 읽는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규범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범이 어떻게 조직되고 축적되어 왔는지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국내 논의에서도 김사승(2008)과 김정모(2012)는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뉴스 생산의 변화가 사실성을 산출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고 지적한다. 이런 논의는 객관주의 문법을 단지 서구 저널리즘 규범의 오래된 유산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한국의 뉴스 생산 구조 안에서 기술 변화와 매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계속 재구성되어 온 현실적 관행으로써 객관주의를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객관주의는 ‘선언’이라기보다는 ‘구현’이며, ‘원칙’이라기보다는 ‘반복되는 배열’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객관주의를 손쉽게 활용하는 동시에, 선택적으로 전유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객관주의 문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적 지표들, 곧 인용, 전문가, 출처, 현장성, 수치, 균형의 수행 등을 통해 가시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사실성의 형식적 지표: 인용, 출처, 전문가, 현장성, 수치, 균형

객관주의 문법이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수행 가능한 형식이라는 점을 주지한다면, 그 문법이 실제 뉴스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어떤 표지들로 가시화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인용과 출처 제시, 전문가의 호출, 현장성과 목격의 표상, 수치와 데이터의 동원, 반대 입장의 병치와 균형의 수행은 모두 이러한 사실성의 형식적 지표들이다. 이 지표들은 개별적으로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보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위해 존재하며, 기능한다.

이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객관주의 지표는 전통적으로 인용과 출처 제시로 대표되어 왔다. 최

근의 연구에서도 뉴스 소스(취재원)는 저널리즘의 가치, 규범, 루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뉴스룸 안에서 자연화된 전문직 규범의 일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Prodnik & Vobič, 2024). Reich(2011) 역시 출처의 신뢰성이 개념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차 검증과 귀속 방식 같은 실천을 통해 판단된다고 보았다. 결국 출처 제시는 사실을 말하는 내용의 일부인 동시에, 그 사실을 정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형식적 표지이기도 하다.

전문가 인터뷰나 전문가 코멘트 역시 복잡한 사안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권위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Boyce(2006)와 Croce(2025)의 논의는 전문가가 사실성의 강력한 형식적 지표이면서, 그 효과가 단지 '전문가가 등장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전문가의 자격과 질문의 수준, 근거 제시의 방식이 함께 가시화될 때에만 전문성은 사실성의 증거처럼 작동한다.

현장, 그리고 목격과 같은 단서도 사실성 장치다. 현장 화면, 생중계, 목격자 영상, 장소의 구체성은 사건과의 근접성을 시각화하며, 그 근접성이 곧 사실성의 증거처럼 읽히도록 만든다. Katsaounidou 등(2020)과 Grut(2026)이 보여주듯, 시각성과 현장성은 그만큼 조작 가능성과 검증 부담의 문제도 크게 수반한다.

수치와 데이터의 동원 역시 주요한 저널리즘의 형식적 지표다. Coddington(2015)이 보여주듯 데이터 저널리즘의 부상과 강조는 수량화된 정보의 저널리즘적 위상이 주요한 쟁점이 된다. 통계적 주장과 데이터 활용이 공정성과 검증의 언어 속에서 뉴스 권위와 긴밀히 결부되는 것이다(Cushion, Lewis & Callaghan, 2017). 또한 균형과 공정성의 수행 역시 객관주의 문법의 핵심 지표다. Mont'Alverne 등(2023)의 연구나 Terzian(2025)의 지적에서 공통적으로 짚는 바, 균형이 여전히 강력한 정당성 표지이지만 동시에 불편부당성과 균형성 등의 형식적 객관주의 한계가 파생될 수 있다.

결국 인용, 출처, 전문가, 현장성, 수치, 균형은 모두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문법이 구체적으로 식별되는 형식적 지표들이다. 이 지표들이 함께 작동할 때 '이 보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인상을 조적한다. 그래서 이 지표들은 저널리즘 장 내부에서 오랫동안 권위의 근거로 축적되어 왔지만, 동시에 장 외부의 행위자들에게도 비교적 손쉽게 차용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3) '저널리즘적 실천'에서의 차용과 재배열

오늘의 플랫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저널리즘적 실천'은 인용, 출처, 전문가, 현장성, 수치, 균형 같은 지표들을 선택적으로 호출하고 재배열함으로써, 자신의 발화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취향의 표현이 아니라 공적 정보 제공의 형식으로 제시하려 한다. 이 장에서 말하는 차용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저널리즘 장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상징 자본을 플랫폼 환경에 맞게 재조합하는 실천을 뜻한다(Carlson, 2016; Lewis, 2012; 이종명, 2022).

이러한 차용은 무엇보다 자기 위치 짓기의 언어에서 먼저 드러난다. 대안매체와 플랫폼 행위자들은 자신을 단순한 반언론적 존재로 제시하기보다, 기존 언론이 수행하지 못한 기능을 보완하거나 교정하는 존재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Ihlebaek & Figenschou, 2024; 2026). 국내의 경우도 유용민(2019), 양선희(2020), 마정미(2020), 이종명(2022)의 논의들에서, 플랫폼 위의

실천이 저널리즘의 외부에서 출현했지만 동시에 저널리즘의 언어와 형식을 가장 집요하게 '참칭'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용의 핵심은 형식적 지표의 선택적 재배열에 있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출처를 제시하고, 스크린샷이나 문서를 보여주며, 전문가 혹은 유사 전문가의 발화를 호출하고, 현장 화면과 그래픽, 수치와 차트를 동원하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뉴스룸의 조직적 검증 절차 안에서 사용되기보다, 보다 빠르고 즉각적인 해설과 정서적 결속, 주목 확보의 문법과 저널리즘의 장에 강력한 경제 자본의 즉각적 논리 속에서 배치된다. 그 결과 이 지표들은 검증된 사실성의 증거라기보다, 사실성을 암시하는 외양으로 기능적으로 배치된다.

이 점은 플랫폼 환경에서의 신뢰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한 오해정과 최지향(2022)의 연구에서도 보다 복합적인 방식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는 유튜브 뉴스채널 이용자들의 신뢰 형성 과정에서 공정성, 정확성, 완전성과 같은 뉴스품질 요소가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한편, 정파적 기대와의 부합도 함께 작동한다고 본다. 이는 플랫폼 위의 뉴스 신뢰가 전통적 뉴스품질의 형식적 지표들과 정파적 기대 충족이라는 요소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차용이 종종 형식의 수행과 책임의 수행을 분리한다는 데 있다. 이종명(2022)의 연구에서 기자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았던 것은 유튜브 기반 실천이 단지 편향적이거나 자극적이라는 점이 아니라, 취재와 검증, 반론권, 정정, 책임 귀속과 같은 절차적 구조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저널리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저널리즘의 권위를 상징하는 형식적 지표들은 빠르게 호출되지만, 그 지표를 정당하게 만드는 노동과 절차,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후경으로 밀려난다.

결국 '저널리즘적 실천'은 저널리즘의 형식과 권위를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조합함으로써 저널리즘 장 내부의 승인 질서를 시험하는 실천이다. 형식적 지표가 그 절차적 기반과 분리된 채로도 강한 권위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작금의 환경은 그러한 형식적 장치들이 생성형 AI에 의해 얼마나 손쉽게 복제되고 자동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킨다.

5. 생성형 AI와 승인 질서의 재구성

1) 생성형 AI와 저널리즘 승인 질서의 변동

생성형 AI의 등장은 저널리즘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복기하게끔 한다. 무엇이 저널리즘을 저널리즘에게 하는가, 그리고 누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를 또 하나의 독립된 저널리즘 행위자로 단순하게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생성형 AI의 핵심은,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자신의 정당성을 구성해 온 형식과 절차, 판단과 책임의 구조에 기술적으로 개입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단순한 자동화 도구나 효율화 수단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Lewis,

Guzman, Schmidt(2019)와 Broussard와 동료 학자들(2019)의 논의가 깊은 바, 생성형 AI를 뉴스 생산 관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사회기술적 요소로 볼 필요가 있다. Carlson(2018)은 알고리즘적 판단이 저널리즘 전문성의 핵심인 저널리즘적 판단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인 판단의 권위가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경계 작업과 직결된 쟁점이 된다. 생성형 AI는 저널리즘의 형식과 외적 완성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려 누가 말할 자격을 갖는지, 누가 판단하고 검증하며 누가 책임지는지를 둘러싼 경계를 다시 흐리게 만든다. 동시에 저널리즘처럼 보이는 산출물은 더 쉽게 생산되지만, 그것이 어떤 판단과 검증, 책임 구조를 통과했는지는 오히려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최근 뉴스 조직과 관행에 관한 저널리즘 담론들에서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모두 저널리즘의 권위와 정당성 문제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Moran과 Shaikh(2022)는 AI를 둘러싼 담론이 효율성, 혁신, 비용 절감의 언어와 함께 노동, 전문성, 통제, 윤리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다고 밝혔다. Simon(2022)은 AI 도입이 뉴스 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기보다, 플랫폼 기업과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며 통제와 자율성의 문제를 새롭게 만든다고 짚었다.

생성형 AI가 특히 결정적인 이유는 객관주의 문법과 사실성의 형식적 지표를 저비용, 고효율로 복제 가능한 대상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 그 압력은 세 방향에서 나타난다. 첫째, 판단의 권위가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둘째, 저널리즘처럼 보이는 형식과 그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절차를 탈각시킨다. 셋째, 저널리즘의 자율성을 뉴스룸 내부의 규범만이 아니라 외부 기술 인프라와의 관계 속에서 재조정한다.

2) 객관주의 문법의 복제와 자동화

앞선 살핀 바와 같이,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문법은 추상적 가치 선언이 아니라 인용, 출처, 전문가, 현장성, 수치, 균형과 같은 형식적 지표들을 통해 가시화된다. 생성형 AI가 증대한 이유는 바로 이 지표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는 데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자동화하는 것은 단순한 문장 작성 일반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사실성과 권위를 조직해 온 형식적 장치들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Carlson, 2015; van Dalen, 2024).

저널리즘 형식의 자동화는 기실 생성형 AI 이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초기 자동화 저널리즘은 구조화된 데이터와 템플릿 기반 서술에 의존했다. 스포츠 보도가 일례다. Kunert(2020)는 자동 생성 기사가 뉴스 생산 라인의 여러 행위자를 다시 연결하고 구조와 관행을 재조정한다고 보았다. 생성형 AI는 이 자동화의 범위를 한층 넓혀, 더 일반화된 저널리즘 문제 전체를 모사할 수 있게끔 한다(van Dalen, 2024). 해설적 문단 배열, 균형 잡힌 어조, 설명적 기사체, 인터뷰를 요약하는 형식 등이 대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생성형 AI가 복제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문법이

다. Carlson(2015)이 지적했듯 자동화 저널리즘은 노동의 재편만이 아니라 뉴스의 구성 형식과 저널리즘 권위에 대한 이해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생성형 AI는 기사체, 설명의 전환부, 중립적 어조, 전문가를 소환하는 듯한 문장 패턴, 출처를 배열하는 기사적 서술 방식까지 재생산할 수 있게 한다.

수용자 인식 연구도 이러한 형식 복제의 효과를 보여준다. Graefe와 Bohlken(2020)의 분석은 자동 생성 뉴스와 인간 작성 뉴스 사이에 신뢰도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Haim과 Graefe(2017), Wu(2020), Lermann Henestroza 등(2023)의 연구도 자동화된 기사 혹은 AI 저자가 기사체와 배열을 충분히 재현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가 곧 저널리즘의 규범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동화가 강화할수록 형식과 책임의 분리가 더 선명해진다. 기사처럼 보이는 문장, 균형 잡힌 서술, 설명적 문체, 출처를 정리하는 형식은 쉽게 재현되지만, 어떤 근거를 왜 선택했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텍스트 표면만으로 판별하기 어려워진다. 바로 이 때문에 생성형 AI의 문제는 기술적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승인 질서의 문제로 회귀하게 된다.

3) 제한적 승인 조건과 저널리즘의 최소 조건: 투명성, 출처, 검증, 인간 책임

생성형 AI의 개입이 저널리즘 실천의 일부로 어느 정도까지 승인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결국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그러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직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의 활용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논하는 일이 아니다. 보다 핵심적인 쟁점은 생성형 AI가 저널리즘의 형식적 문법을 상당한 수준까지 복제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무엇이 여전히 저널리즘의 최소 조건으로 남아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생성형 AI가 기사체를 생산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산출이 어떤 절차와 책임의 구조 안에서만 저널리즘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제1 조건은 투명성이다. 실제로 EU의 AI Act 관련, 2024년 Regulation (EU) 2024/1689의 Article 50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텍스트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동시에 인간의 검토 또는 편집 통제를 거쳤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 편집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EU, 2024, art. 50). 이는 적어도 공적 정보의 생산에서 AI의 개입이 비가시적인 상태로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투명성은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Piasecki 등(2024)이 지적하듯, 현재의 규정과 라벨링(AI 활용 명시)만으로는 뉴스 독자가 기대하는 설명 가능성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Toff와 Simon(2024)의 논의 역시 단순한 “AI-generated” 표기가 자동으로 신뢰를 회복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AI를 썼다”는 사실의 고지가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AI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승인했는지를 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 점에서

투명성은 표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책임(accountability)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건은 출처 추적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이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서술 구조와 인용 형식, 설명적 문체를 산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원자료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누락과 왜곡이 없는지는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생성형 AI는 사실 그 자체보다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문법을 저비용으로 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과 근거의 분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만든다. 따라서 AI가 개입한 뉴스 생산은 원자료의 위치와 인용의 근거, 데이터의 출처, 요약과 재구성의 과정이 사후적으로라도 추적 가능해야 하며, 그 내용이 인간의 실질적 검토를 거쳐 재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AI의 활용은 정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성의 외양과 실제 검증 절차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으로 치달는다.

셋째 조건은 편집 책임과 정정 가능성의 유지다. 생성형 AI가 작성에 일부 기여했다는 사실은 오류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AI가 개입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최종 판단과 편집권, 그리고 오류 발생 시 책임 귀속의 구조를 명확히 유지하는 일이다. 어떤 표현을 채택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제외할 것인지, 어떤 문맥을 보강할 것인지는 저널리즘의 핵심적 판단 행위에 속하며, 이는 여전히 인간의 편집 판단과 책임 아래 놓여야 한다. 또한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표현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정정하고 설명하며 비판에 응답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생성형 AI는 산출물의 속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그 산출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넷째 조건은 이러한 요소들이 개별 기사나 제작자의 선의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차원의 규범과 절차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Morosoli과 동료 연구자의 연구(2026)와 Shin과 동료 연구자들의 논의(2025)는 AI 저널리즘을 둘러싼 공적 기대가 단순한 기술 수용 여부보다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와 규범의 정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했다. 이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개인의 윤리적 결단에만 맡겨져서는 안 되며, 뉴스룸 또는 정보 생산 조직 차원에서 AI 활용 범위, 검토 절차, 출처 관리, 공개 원칙, 정정 체계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생성형 AI의 제한적 승인은 기술 사용의 허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용을 통제하고 설명하며 책임질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개입이 저널리즘 실천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AI를 썼다”는 사실의 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본질적인 조건은 출처 추적 가능성, 검증 가능성, 편집 책임, 정정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의 제도화된 유지에 있다. 이런 점에서 생성형 AI는 저널리즘의 형식을 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한 승인 조건을 요구하는 기술적 조건이다. 형식의 재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저널리즘의 정당성은 형식 바깥의 절차와 책임 구조에 더 강하게 기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성형 AI의 문제는 단순한 도구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 위기의 문제로 확장된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인식론적 중개 기능, 곧 무엇이 공적으로 믿을 만한 지식인지 선별하고 검증하며 유통해 온 역할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다. 디지털 전환이 전통적 지식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면, 생성형

AI는 그 불안정성을 한층 더 가속화한다(Neuberger et al., 2023; Bartsch et al., 2025). 생성형 AI가 문제적인 이유는 저널리즘처럼 보이는 형식과 설명의 외양을 상당한 수준으로 재현할 수 있음에도, 그 산출이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 정당화와 책임 구조를 동반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생성형 AI 시대 저널리즘의 최소 조건을 네 가지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출처와 근거의 추적 가능성이다. 둘째, 인간의 실질적 검증과 편집 판단이다. 셋째, 정정과 설명, 비판에 응답할 수 있는 책임 귀속의 구조다. 넷째, 이러한 원칙이 개별 행위자의 양심을 넘어 조직 차원의 규범과 절차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생성형 AI가 드리운 위협은 저널리즘의 붕괴 촉발이 아닌, 저널리즘의 권위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저널리즘의 일부로 승인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최소 조건들이 가시적으로 유지되고 충족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6. 나가며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환경과 생성형 AI의 확산이 저널리즘에 어떠한 외부적 충격을 가하고 있는가에 연구의 논점을 정박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관심은 이러한 변화가 저널리즘이 스스로를 정당화해 온 조건, 곧 무엇이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승인될 수 있는가를 경계짓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에 있었다. 작금의 쟁점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나 기술이 기존 언론을 대체하는가의 여부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저널리즘의 권위가 더 이상 특정 조직이나 직업 집단의 독점적 지위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그 권위를 구성해 온 형식과 절차, 판단과 책임의 결합 역시 더 이상 자명한 것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널리즘 장, 경계 작업, 승인 질서라는 문제의식을 경유하여 현재의 변화에 천착했다. 주지의 사실은 저널리즘의 위기가 단순히 신뢰의 저하나 산업적 불안정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사실을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실을 다루고,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하며,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를 사회적으로 설득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널리즘의 권위는 내용의 진실성만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그 진실성을 다루는 절차의 공적 정당화 위에서 유지되어 왔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국면이다. ‘저널리즘적 실천’은 저널리즘의 외부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저널리즘의 형식과 상징 자본에 가장 강하게 의존한다. 이러한 형식적 차용이 저널리즘의 책임 구조까지 동일하게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작금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저널리즘의 바깥에 머무는 주변 현상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승인 질서를 실제로 시험하고 재배열하는 경계 실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저널리즘으로 단순 승인하거나 반대로 전면 배제하

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공적 정보 실천으로서의 정당성을 구성하는가를 보다 정밀하게 다시 묻는 일이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문제를 한층 더 급진적인 수준으로 내몬다. 플랫폼 위의 행위자들이 저널리즘의 형식적 지표를 선택적으로 차용해 왔다면, 생성형 AI는 이제 그 형식적 장치들을 보다 손쉽게, 효율적이면서 대량적으로 복제할 수 있게 만든다. 이제 저널리즘의 핵심은 더 이상 기사체나 설명 방식, 균형 잡힌 어조 같은 외적, 형식적 흔적에만 놓일 수 없게 된다. 형식의 복제가 쉬워질수록, 저널리즘의 정당성은 오히려 형식 내부의 구조적, 관행적 조건들, 곧 출처의 추적 가능성, 실질적 검증, 편집 판단, 정정 가능성, 책임 귀속과 같은 절차적 구조에 더 강하게 기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생성형 AI는 저널리즘의 붕괴를 뜻한다기보다, 저널리즘의 최소 조건이 무엇인지를 더 엄격하게 묻게 만드는 마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학계와 업계 공히 저널리즘에 대한 재정의의 요구한다. 저널리즘은 특정 조직 소속이나 익숙한 형식적 지표만으로 정의되기보다, 공적 판단을 수행하는 절차와 책임의 체계로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널리즘이란 단순히 정보를 빠르게 생산하고 유통하는 활동이 아니라, 출처를 추적 가능하게 제시하고, 검증의 과정을 거치며, 편집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고, 오류에 대해 정정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공적 실천이어야 한다. 저널리즘의 경계는 이제 누가 기자인가라는 신분적 질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적 판단의 부담을 떠안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재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금의 저널리즘 논의는 기술 수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이나 인간 대 기계의 대립 구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 저널리즘의 형식적 외양을 넘어 공적 판단의 실천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둘러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는 우선 뉴스룸 차원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와 검토 절차, 출처 관리, 정정 체계를 명시하는 제도적 준비를 요구한다. 또한, 플랫폼 기반 정보 생산자들에 대해서도 단순한 배제나 목인이 아니라, 공적 정보 실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공문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용자 차원에서도 저널리즘의 신뢰를 형식적 문법이나 친밀성의 효과가 아니라 절차와 책임의 문제로 식별할 수 있는 비판적 문해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결국 승인 질서의 재구성은 저널리즘 내부의 자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제도, 플랫폼, 생산자, 수용자가 함께 관여하는 공적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저널리즘 연구는 오랫동안 전문적 규범, 조직, 산업 위기, 기술 변화 가운데 어느 한 축을 중심으로 현재를 해석해 왔다. 작금의 상황은 이 요소들을 분리해 개별 수준에서 설명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지형 변화, 생성형 AI의 특성은 저널리즘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부수적 조건이 아니라, 저널리즘 장의 경계와 권위, 판단과 책임의 구조 자체를 다시 배열하는 계기이다. 그런 점에서 ‘승인 질서’라는 문제의식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단지 신뢰 하락이나 기술 도입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무엇이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둘러싼 관계적·절차적 질서의 재편으로 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널리즘 장 논의와 경계 작업 논의, 그리고 객관주의 문법에 대한 수행적 이해를 하나의 논리 속에서 다시

접속하려는 시도라는 점으로 읽혀지길 주문한다.

본 연구는 개별 사례의 실증적 비교보다, 플랫폼 환경과 생성형 AI 국면을 관통하는 문제를 저널리즘의 승인 질서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속 작업으로써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저널리즘적 실천’과 객관주의 문법의 도구적 전용인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그러한 연구들 역시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엇이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승인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승인에는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어떠한 책임 구조가 요구되는가”. 본고는 바로 그 질문을, 작금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과 생성형AI의 지배 국면 속에서 복기하고,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김경모 (2012).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 전통과 변화의 경계. <언론정보연구>, 49(1), 7-37.

김사승 (2008). 저널리즘의 기술적 재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뉴스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4(2), 7-47.

마정미 (2020). 유튜브 저널리즘과 공론장(public sphere)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19(1), 217-246.

양선희 (2020).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전통적 저널리즘의 대응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31(1), 245-262.

오해정·최지향 (2022). 유튜브 뉴스채널의 신뢰도 형성 메커니즘 분석: 뉴스품질 인식과 정파성 기대부합 인식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9(1), 50-91.

유용민 (2019).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 논쟁하기: 행동주의의 부상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탈경계화. <한국방송학보>, 33(6), 5-38.

이종명 (2022).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 집단의 인식 연구: 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30(1), 51-98.

Banjac, S., & Hanusch, F. (2023). The struggle for authority and legitimacy: Lifestyle and political journalists' discursive boundary work. *Journalism*, 24(10), 2155-2173.

Bartsch, A., Neuberger, C., Stark, B., Karnowski, V., Maurer, M., Pentzold, C., Quandt, T., Quiring, O., & Schemer, C. (2025). Epistemic authority in the digital public sphere: An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agenda. *Communication Theory*, 35(1), 37-50.

Bastin, G., & Bert-Erboul, C. (2025). Journalists' authority and its bounded trade: Twitter, journalists, and boundary work in contemporary France's music scene. *Journalism*, 26(7), 1447-1468.

- Benson, R. (2006). News media as a “journalistic field”: What Bourdieu adds to new institutionalism, and vice versa. *Political Communication*, 23(2), 187–202.
- Boudana, S. (2011). A definition of journalistic objectivity as a performance. *Media, Culture & Society*, 33(3), 385–398.
- Bourdieu, P. (1994). L’emprise du journalism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01–102, 3–9.
- Boyce, T. (2006). Journalism and expertise. *Journalism Studies*, 7(6), 889–906.
- Broussard, M., Diakopoulos, N., Guzman, A. L., Abebe, R., Dupagne, M., & Chuan, C.-H.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ournalis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6(3), 673–695.
- Carlson, M. (2015). The robotic reporter: Automated journalism and the redefinition of labor, compositional forms, and journalistic authority. *Digital Journalism*, 3(3), 416–431.
- Carlson, M. (2016). Metajournalistic discourse and the meanings of journalism: Definitional control, boundary work, and legitimation. *Communication Theory*, 26(4), 349–368.
- Carlson, M. (2018). Automating judgment? Algorithmic judgment, news knowledge, and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New Media & Society*, 20(5), 1755–1772.
- Coddington, M. (2015). Clarifying journalism’s quantitative turn: A typology for evaluating data journalism, computational journalism, and computer-assisted reporting. *Digital Journalism*, 3(3), 331–348.
- Cohen, N. S. (2015). Entrepreneurial journalism and the precarious state of media work. *South Atlantic Quarterly*, 114(3), 513–533.
- Cohen, N. S. (2019). At work in the digital newsroom. *Digital Journalism*, 7(5), 571–591.
- Croce, M. (2025). Expert interviews, good questioning, and the epistemic duties of journalism. *Episteme*, 22(3), 668–687.
- Cushion, S., Lewis, J., & Callaghan, R. (2017). Data journalism, impartiality and statistical claims: Towards more independent scrutiny in news reporting. *Journalism Practice*, 11(10), 1198–1215.
- Deuze, M. (2005). What is journalism? Professional identity and ideology of journalists reconsidered. *Journalism*, 6(4), 442–464.
- Dickinson, R. (2008). Studying the sociology of journalists: The journalistic field and the news world. *Sociology Compass*, 2(5), 1383–1399.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4).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144.
- García-Perdomo, V. (2024). How social media influence TV newsrooms’ online engagement and video distribu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101(4), 911–932.
- Graefe, A., & Bohlken, N. (2020). Automated journalism: A meta-analysis of readers’ perceptions of human-written in comparison to automated news. *Media and Communication*, 8(3), 50–59.
- Grut, S. (2026). Future imaginaries of visual open source investigative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Advance online publication.
- Guo, S. Z., Wang, D., & Shen, C. F. (2026). The expectation-evaluation gap: Audience news engagement and perceptions of media performance and credibility. *Global Media and China*, 11(1), 24–41.
- Haim, M., & Graefe, A. (2017). Automated news: Better than expected? *Digital Journalism*, 5(8), 1044–1059.
- Ihlebaek, K. A., & Figenschou, T. U. (2024). Journalism as a strategic action field: How to study contestations and power dynamics between professional journalism and its challengers. *Digital Journalism*, 12(6), 851–868.
- Ihlebaek, K. A., & Figenschou, T. U. (2026). Challengers in the journalistic field—A study of alternative media and their relations to incumbents, governance units, the state, and each other. *Journalism*, 27(3), 604–623.
- Ivask, S. (2026). Professional boundaries in Estonian journalism: A decade of digital and organisational chang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dvance online publication.
- Katsaounidou, A. N., Gardikiotis, A., Tsipas, N., & Dimoulas, C. A. (2020). News authentication and tampered images: Evaluating the photo-truth impact through image verification algorithms. *Heliyon*, 6(12), e05808.
- Kira, B., & Townend, J. (2025). Defining the boundaries of journalism and news publishers: Implications of the Online Safety Act 2023 for the public interest and media freedom. *Journal of Media Law*, 17(1), 38–67.
- Kunert, J. (2020). Automation in sports reporting: Strategies of Data Providers, Software Providers, and Media Outlets. *Media and Communication*, 8(3), 5–15.
- Lermann Henestrosa, A., Greving, H., & Kimmerle, J. (2023). Automated journalism: The effects of AI authorship and evaluative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 of a science journalism artic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8, 107445.
- Lewis, S. C. (2012). The tension between professional control and open participation: Journalism and its boundar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6), 836–866.

- Lewis, S. C., Guzman, A. L., & Schmidt, T. R. (2019). Automation, journalism, and human-machine communication: Rethinking roles and relationships of humans and machines in news. *Digital Journalism*, 7(4), 409–427.
- Maares, P., & Hanusch, F. (2022). Interpretations of the journalistic field: A systematic analysis of how journalism scholarship appropriates Bourdieusian thought. *Journalism*, 23(4), 736–754.
- Maares, P., Löhmann, K., Hanusch, F., & Nölleke, D. (2025). Autonomy,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The meaning and negotiation of journalistic values across different journalistic bea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Advance online publication.
- Mont'Alverne, C., Badrinathan, S., Ross Arguedas, A., Toff, B., Fletcher, R., & Nielsen, R. K. (2023). "Fair and balanced": What news audiences in four countries mean when they say they prefer impartial news. *Journalism Studies*, 24(9), 1131–1148.
- Moran, R. E., & Shaikh, S. J. (2022). Robots in the news and newsrooms: Unpacking meta-journalistic discourse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10(10), 1756–1774.
- Morosoli, S., Naudts, L., Cools, H., Venkatraj, K., Helberger, N., & de Vreese, C. (2026). Public accountability and regulatory expectations for AI in journalism: Qualitative evidence from focus groups with Dutch citizens. *AI & Society*, 41, 1467–1479.
- Neuberger, C., Bartsch, A., Fröhlich, R., Hanitzsch, T., Reinemann, C., & Schindler, J. (2023).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knowledge order: A model for the analysis of the epistemic crisis.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7(2), 180–201.
- Pedersen, L., Ihlebæk, K. A., Figenschou, T. U., & Mayerhöffer, E. (2024). Boundary work in the Nordic media model: Metajournalistic discourse on alternative media in Denmark, Norway, and Sweden. *Journalism Studies*, 25(14), 1757–1775.
- Petrucchio, P., Neilson, T., & Stöcker, C. (2025). 'A part of our work disappeared': AI automated publishing in social media journalism. *Journalism and Media*, 6(1), Article 30.
- Piasecki, S., Morosoli, S., Helberger, N., & Naudts, L. (2024). AI-generated journalism: Do the transparency provisions in the AI Act give news readers what they hope for? *Internet Policy Review*, 13(4), 1–28.
- Prodnik, J. A., & Vobič, I. (2024). News sources in the sociology of the media: A critical re-examination. *Critical Sociology*, 50(4–5), 795–812.
- Reich, Z. (2011). Source credibility and journalism: Between visceral and discretionary judgment. *Journalism Practice*, 5(1), 51–67.
- Salamon, E., Bélair-Gagnon, V., & Crawford, M. (2026). Journalism and social media in creator economies: Evolving structures and labor. *New Media & Society*. Advance online publication.
- Shin, D., Zhou, S., & Rasul, A. (2025). Towards responsible AI journalism: Mapping journalists' perceptions of AI ethics. *Journalism*. Advance online publication.
- Simon, F. M. (2022). Uneasy bedfellows: AI in the news, platform companies and the issue of journalistic autonomy. *Digital Journalism*, 10(10), 1832–1854.
- Singer, J. B. (2018). Entrepreneurial journalism. In T. P. Vos (Ed.), *Journalism* (pp. 355–372). De Gruyter Mouton.
- Steiner, M. (2020). Soft presentation of hard news? A content analysis of political Facebook posts. *Media and Communication*, 8(3), 244–257.
- Terzian, G. (2025). The epistemic dangers of journalistic balance. *Episteme*, 22(4), 931–951.
- Toff, B., & Simon, F. M. (2024). "Or they could just not use it?": The dilemma of AI disclosure for audience trust in new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30(4), 881–903.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Vaarala, V. (2025). Podcasting the truth: Challenging journalistic knowledge and building epistemic authority in independent YouTube podcasts. *Media and Communication*, 13, Article 8984.
- van Dalen, A. (2024). Revisiting the algorithms behind the headlines: How journalists respond to professional competition of generative AI. *Journalism Practice*, 20(3), 897–914.
- van Dijck, J., & Poell, T. (2013). Understanding social media logic. *Media and Communication*, 1(1), 2–14.
- Wu, Y. (2020). Is automated journalistic writing less biased? An experimental test of auto-written and human-written news stories. *Journalism Practice*, 14(8), 1008–1028.

세션 1: 저널리즘 이론의 재형성(Re-theorizing)

발제2

AI시대 새로운 객관성으로서
투명성 구현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오세욱(선문대)

AI 시대 저널리즘의 새로운 객관성으로서 투명성 구현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초 록 >

이 연구는 AI 기술이 뉴스 생산 전반에 관여하는 현 시점에서, 저널리즘의 전통적 핵심 가치인 객관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규범적 틀로서 '투명성'의 개념과 구현 방안을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객관성 개념의 역사적 전개를 살피고 AI 시대 객관성이 직면한 문제들을 검토한 뒤, 투명성이 새로운 핵심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맥락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북미·유럽·한국에서 발생한 10개의 AI 활용 사례를 사실성 훼손과 이용 고지 부족, 저자성과 정체성의 위기, 편집권·노동 구조·플랫폼 생태계의 재편이라는 세 유형으로 정리하고,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정보 공개(disclosure) 등 세 층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개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는 특정 조직의 일탈이나 단일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투명성 원칙의 세 층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는 콘텐츠 층위(식별·고지·설명)의 체계화, 제작 공정 층위(추적 가능성과 인간 감독의 제도화), 거버넌스 층위(조직·산업·플랫폼의 책무 체계)에서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AI 시대 저널리즘이 지향해야 할 규범이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허상 대신 기계와 인간이 얽힌 판단 과정 전체를 가시화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 주며, 투명성이 객관성의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 객관성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위에서 이를 보완·재구성하는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AI 저널리즘, 투명성, 객관성, 설명 가능성, 추적 가능성, 정보 공개, 인간 감독

1. 문제의 제기

AI의 확산은 뉴스룸의 제작 공정을 넘어 저널리즘의 존재론적 기반과 뉴스 이용자의 인식 체계 자체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 이후 뉴스룸에서는 보도자료 등 자료를 기사 형식으로 변환하기, 작성된 기사를 단신 및 SNS 맞춤형 형식으로 바꾸기, 자료 및 기사의 논조 바꾸기, 논문·책·보고서 등의 요약 및 정리, 다국어 번역 및 기사화, 기초 문헌 탐색 및 요약, 특정 주제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 유튜브 영상 요약 및 번역, 기사 내 참고 이미지나 영상의 자동 생성, 데이터 파일 분석 및 시각화, 텍스트 및 수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텍스트 내용에 대한 긍·부정 분석 등의 내용 분석, 이미지나 영상 조작 여부 판단, 자료에 대한 1차적인 사실 여부 판단(fact checking), 실무에 활용할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 인포그래픽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언론사 차원의 공식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기자들이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가치와 인식론적 토대를 전면적으로 재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확산은 동시에 심각한 인식론적 우려를 낳고 있다. 저벡슨(Jurvetson, 2006)이 지적하듯이 컴퓨터 코드의 진화 속도는 생물학적 생식에 비할 수 없이 빠르며, 우리는 그 내부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이 스스로 개선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효율성을 위해 인

간 고유의 판단 작업이 자동화될수록,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와 통제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저널리즘 이론의 재형성(Re-theorizing)’이라는 과제가 기술 적응의 차원을 넘어, 저널리즘의 인식론적 토대 자체를 재건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 토대의 중심에는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자신의 정당성 근거로 삼아 온 객관성의 문제가 놓여 있다. AI가 뉴스 생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누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객관성 개념이 그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공적 가치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왔던 객관성은 AI 시대에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워드(Ward, 2004/2007)는 객관성 개념이 19세기 자유주의 신문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밝히면서도, 인간적 편향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의 객관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논증한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7/2009) 역시 객관성이란 순수한 진실의 반영이 아니라, 그릇된 정보를 확인하고 의도적 편견을 제거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부단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가 뉴스 생산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는 오늘날, 이 과정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전통적 객관성 개념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명성이 새로운 핵심 저널리즘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미스(Smith, 2013)는 기존의 저널리즘 윤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으며,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 붕괴와 빠른 속도로 인한 오류 증가 등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음을 지적한다. 프렌드(Friend, 2007)는 뉴스 제작 과정의 공개가 독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윤리 지침임을 설명하며, 듀즈(Deuze, 2005)는 투명성이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 쌍방향 소통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7/2009) 또한 취재원과 취재 방법의 공개, 불확실성의 정직한 노출이 객관성 추구의 핵심 열쇠임을 강조한다. 한편, 워드(Ward, 2015)와 차다와 콜리스크(Chadha & Koliska, 2015)는 투명성이 형식적 홍보 수단에 그치거나, 방대한 독자 반응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AI 시대의 투명성은 AI의 작동 방식, 학습 데이터의 출처, AI 생성 콘텐츠의 명시적 표시 등 새로운 차원의 공개 의무를 포함하며, 기존 논의보다 훨씬 넓은 범위와 깊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AI 기술이 뉴스 생산 전반에 관여하는 현 시점에서, 저널리즘의 전통적 핵심 가치인 객관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규범적 틀로서 ‘투명성’의 개념과 구현 방안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널리즘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사례와 그 사례들에서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하고, AI 시대 저널리즘 투명성의 개념적 틀을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1) 저널리즘 윤리와 객관성 개념의 역사적 변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언론이 유지해야 하는 핵심 원칙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객관성은, 자명하거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언론의 역사적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온 규범적 구성물이다. 워드(Ward, 2004/2007)는 오늘날의 객관성 개념이 19세기 자유주의 신문의 형성과 함께 등장했음을 밝힌다. 19세기 들어 언론이 상업화되고 기술 발전으로 정보 수집력이 강화되면서, 어떤 정보가 선택되어 신문에 실리는가와 관련한 편파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대중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저널리스트의 책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오세욱·김수아, 2016). 이 시기 객관성은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구성되었다. 첫째는 사실성으로, 사진 기술의 발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사실성 신화의 정점을 이루었다. 둘째는 독립성으로, 정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실천은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었다. 셋째는 전문직주의로, ‘전문직

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며 객관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객관성의 지표로 작동하였다. 이 세 가지 규범은 20세기 들어 저널리즘 윤리의 기초로 자리 잡았다(Ward, 2004/2007).

그러나 이 규범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전통적 객관성은 산업적으로는 불편부당한 뉴스가 금전적으로 유리하고 명예 훼손의 우려가 적었기 때문에 환영받은 측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객관성의 형식적 요건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뉴스의 표현 양태나 취재 방식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객관성이란 자본주의적·상업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메릴과 로웬스타인(Merrill & Lowenstein, 1971/1975)은 객관 보도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부단히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입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메릴(Merrill, 1977)은 진실성(Truthful), 불편부당성(Unbiased), 완전성(Full), 형평성(Fair)의 ‘TUFF 원칙’을 제시하며, 언론이 자신의 보도가 절차적으로 정당했음을 증명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저널리즘 연구에서도 객관성의 한계에 대한 응답으로 공정성 개념이 적극적으로 탐구되었다. 이민웅·이창근·김광수(1993)는 공정성을 진실성·적절성·균형성·중립성·다양성·독립성의 여섯 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하였으며, 강명구(1994)는 더 나아가 객관성 개념이 공정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영재(2004)는 이러한 공정성 개념이 사실상 웨스터슈탈(Westerstahl, 1983)의 객관성 모델을 변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언론의 공정성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지는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연식(2009)은 이러한 논의를 사실의 타당성, 형평성, 취재 방법과 태도의 정당성이라는 세 범주로 재정리하였다.

이들 논의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객관성이든 공정성이든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7/2009)은 저널리즘의 진실을 단순한 정확성과 구분하면서, 진실은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그릇된 정보를 확인하며 의도적 유포나 선전적 편견을 제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객관성을 ‘결과물의 속성’이 아니라 ‘방법론적 실천’으로 재정의하는 관점으로, 기자는 객관적일 수 없지만 저널리즘은 객관적일 수 있다는 명제로 요약된다. 없었던 것을 추가하지 않고, 수용자를 속이지 않으며, 방법과 동기에 대해 투명하게 제시하고, 기자 스스로 취재하며 겸허하게 접근한다는 원칙이 객관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듀즈(Deuze, 2005) 역시 공공성, 객관성, 자율성, 속보성, 윤리와 정당성에 대한 감각이라는 다섯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규범 체계로 제시하였으며, 김영욱·진민정·강신규(2014)는 디지털 환경에서 투명성과 대화 촉진 등이 전통적 저널리즘 품질 기준을 보완하는 새로운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널리즘 윤리 역사에서 객관성은 출발부터 ‘완결된 규범’이 아니라 당파성과 편향성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 프로젝트로 등장했으며, 그 한계에 대한 비판과 응답을 거치며 점차 방법론적·절차적 차원으로 재정의되어 왔다. 이는 AI의 본격적 개입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국면에서 객관성 개념이 또 한 번 재성찰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 AI 시대 저널리즘 객관성의 도전과 재성찰

AI 기술의 뉴스를 확산은 앞 절에서 검토한 객관성 규범의 역사적 전개에 또 하나의 결정적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쇄술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은 매번 기자의 일하는 방식, 뉴스의 내용, 뉴스를의 구조와 조직, 그리고 뉴스와 이용자의 관계를 재정의해 왔으며(Pavlik, 2000), AI 역시 뉴스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다만 AI의 출현이 과거의 기술 변화와 차원을 달리하는 지점은, 기자의 ‘대체 가능성(replaceability)’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 있다. 뉴스로는 이제 효율성 증대, 도달 범위 확대, 보다 개인화된 뉴스 내러티브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과 동시에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AI 생성 콘텐츠의 책무성 등 심각한 윤리적 질문에 직면해 있다(Sonni,

Hafied, Irwanto, & Latuheru, 2024).

AI 시대 객관성 논의의 출발점은 이른바 ‘기계적 객관성(mechanical objectivity)’의 부활이라는 현상이다. 칼슨(Carlson, 2019)은 ‘기계적 객관성’을 기술 시스템이 인간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규정하고, 이 개념이 사진 저널리즘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뉴스 알고리즘에 재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알고리즘 판단이 인간 판단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뉴스룸과 이용자의 담론은 ‘인간의 주관성은 의심스럽고 대체되어야 하며,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객관적이고 도입되어야 한다’는 이종의 믿음에 경사되기 쉽다(Carlson, 2019). 이러한 믿음은 저널리즘의 인식론적 권위(epistemic authority)를 재구성하는데, 기계가 생산하는 정보는 편향 없이 선별된 객관적 정보로 간주되는 반면 인간의 주관성은 뉴스 서사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칼슨(Carlson, 2019)이 지적하듯, 알고리즘이 생성한 정보 역시 인간의 감독이 부재할 경우 허위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편향을 배제한 것으로 제시되는 자동 생산 정보는 실상 ‘기계의 주관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에 가깝다. 이 점에서 AI 시대의 객관성 논의는 ‘기계는 중립적’이라는 전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 대한 비판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구조적 편향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 왔다. 오세욱(2020)은 자동화 결과물이 드러내는 편향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알고리즘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한 캐리커처에 가까우며, 기존 내용을 축약해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편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디아코폴로스(Diakopoulos, 2019)는 알고리즘의 자동 의사 결정은 우선순위 결정, 분류, 관련짓기, 필터링이라는 네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정은 본질적으로 차별적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한다.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대부분 과거의 데이터라는 점, 학습의 방향과 초기 데이터 선택에 사람의 판단이 개입한다는 점,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과소·과대 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Lerman, 2013)은 모두 알고리즘 결과물이 특정 사회문화적 조건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오세욱, 2020; 오세욱·김수아, 2016).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러한 구조적 편향의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다. 생성형 AI 기술은 통계적 패턴에 기반해 작동하기 때문에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과 책임 소재(accountability) 문제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은 언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Mittelstadt, 2019). 이는 BBC, ZDF, ABC, SBS, CBC, PBS, KBS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환각과 알고리즘 편향을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AI가 생산한 결과물을 ‘사실의 판단 주체’가 아니라 ‘보조적 도구’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공통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최선욱, 2024). 저널리즘 현장에서는 AI의 환각 현상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출처가 만들어지고, 권위 있어 보이는 링크와 보도자료 번호까지 제시되지만 실재하지 않는 사례가 여러 보도를 통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는 ‘기계가 생산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라는 가정이 실제 뉴스룸의 경험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 준다.

AI가 뉴스 생산의 전 공정에 개입함에 따라, 객관성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사실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인식론적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대민(2023)은 AI가 확률적으로 생산한 결과물이 사실로 수용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의 도입을 통해 사실성 제도로서의 언론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정현과 박소영(2024)은 한 걸음 더 나아가, AI 팩트체크 ‘기술’이 ‘사실’을 구성하는 방식을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규명하면서, AI가 구성하는 사실성과 저널리즘이 구축해 온 사실성 사이에 근본적 간극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소영과 이정현(2023)이 팩트체킹 현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 인터뷰 연구 역시, AI 기반 팩트체크가 속도와 처리량에서는 인간 기사를 보완할 수 있으나, 맥락적 판단과 취재원의 신뢰성 평가, 공적 가치에 대한 해석의 영역에서는 인간 기자의 작업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인식을 담고 있다.

AI 사실검증이 지닌 구조적 한계는 기술적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구오와 동료들(Guo et al., 2022)은 자동화된 팩트체크(Automated Fact Checking) 연구를 종합하면서, 무엇이 검증할 만한 주장인지를 판정하는 ‘검증 가치(check-worthiness)’ 판단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편향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AI 모델은 인간 전문가가 미리 라벨링한 주석 지침을 학습 자료로 삼기 때문에, 기자와 언론 기관이 암묵적으로 지닌 편향을 그대로 복제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아부만수르와 주비아가(Abumansour & Zubiaga, 2023)는 아랍어 트윗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에서, 정치·사회와 같이 학습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된 주제에 대해서는 AI 모델이 유의미한 검증 가치 판정 성능을 보였으나, 페미니즘이나 베두인 문제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주제에 대해서는 성능이 크게 저하됨을 보고하였다. 박아란(2024)은 국내외 언론사의 AI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기술적 한계가 편집 윤리의 문제로 직결되며 저널리즘 원칙과 민주주의적 가치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AI가 객관성을 자동으로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칼슨(Carlson, 2019)의 ‘기계적 객관성’ 비판과 맞닿아 있으며, AI 시대 객관성 규범이 결과물의 ‘중립적 속성’이 아니라 사실성이 구성되는 과정 전체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AI 시대로의 진입은 객관성을 더 이상 결과물의 ‘중립적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7/2009)의 방법론적 객관성 개념은 AI 시대에 와서 더욱 확장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브루사드 등(Broussard, Diakopoulos, Guzman, Abebe, Dupagne, & Chuan, 2019)은 AI를 저널리즘에 적용하는 과정이 단순한 도구 도입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사회기술적 담론을 재편하는 과정임을 지적하며,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human-centered)’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산토스 등(de-Lima-Santos et al., 2025)이 세계 17개국 37개 저널리즘 조직의 AI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간 감독(human oversight)과 협력적 통제(cooperative control), 편집 책임이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AI 시대 저널리즘이 ‘기계가 객관적이므로 인간을 대체한다’는 담론 대신, ‘AI의 한계와 편향을 전제로 인간이 의미 있게 개입한다’는 방향으로 규범적 좌표를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객관성 개념은 과거처럼 ‘기자가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수준에 머물 수 없다. AI 시대의 객관성은 첫째,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을 전제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감시적 차원, 둘째, AI가 수행한 작업의 조건과 한계를 수용자에게 드러내는 설명적 차원, 셋째, 자동화된 판단의 결과를 인간 기자와 뉴스룸의 집단적 성찰을 통해 재검증하는 절차적 차원을 포괄해야 한다(Carlson, 2019; Diakopoulos, 2019; 오세욱, 2020). 이는 전통적 객관성 논의가 강조해 온 사실 확인의 규율, 수용자에 대한 정직성, 방법과 동기의 공개(Kovach & Rosenstiel, 2007/2009)를 AI라는 새로운 행위자에게 확장 적용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AI 시대의 객관성은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허상 대신, 기계와 인간이 얽힌 판단 과정 전체를 가시화하고 책임지는 규범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구성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투명성(transparency)’이다.

3) 저널리즘 투명성 개념의 발전과 AI 시대의 재구성

이러한 저널리즘에서 객관성 규범의 역사적 전개와 AI 시대의 도전은, 객관성을 보완하거나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투명성(transparency)’의 부상을 설명해 준다. 투명성은 뉴스 생산 과정을 수용자에게 드러내는 실천으로,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윤리의 주변적 개념에 머물러 있었으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핵심 규범으로 이동해 왔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7/2009)이 지적했듯 투명성은 '방법 차원의 객관성'으로서, 기자가 어떻게 정보를 얻었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수용자가 기자의 작업을 검토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는 과학적 방법론과 유사한 논리에서 신뢰의 근거를 구성한다. 취재원과 취재 방법의 공개, 편견의 정직한 노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투명한 제시는 객관성 추구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수단이다(오세욱·김수아, 2016).

디지털 환경의 도래는 투명성 개념을 전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미스(Smith, 2013)는 광고와 콘텐츠, 편집자와 수용자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신속성이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전통적 객관성보다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투명성 윤리가 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하였다. 프렌드(Friend, 2007)는 투명성을 뉴스의 과정을 드러내는 실천으로 정의하면서, 온라인 뉴스 시대 기자들은 자신의 편향을 인정하고 참고한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칼슨(Karlsson, 2010)은 이를 두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첫째는 '공개 투명성(disclosure transparency)'으로, 의사 결정 방식·취재원 선정·오류 인정 등 뉴스 생산 과정의 관찰 가능성과 개방성을 의미한다. 둘째는 '참여 투명성(participatory transparency)'으로, 뉴스 생산 과정에 수용자를 포함시키는 실천을 의미한다. 듀즈(Deuze, 2005) 또한 투명성을 제작자와 수용자가 공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재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투명성의 제도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워드(Ward, 2015)는 투명성이 종종 만병통치약처럼 낭만화되며, 실제로는 디지털 시대의 도전에 맞서는 뉴스 조직의 프로모션 도구이자 수비 전략으로 관행화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차다와 콜리스카(Chadha & Koliska, 2015)는 방대한 사용자 반응을 기자가 모두 다루기 어렵고 끊임없는 수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참여 투명성의 실천적 한계를 확인하였다. 크래프트와 하임(Craft & Heim, 2009)은 과도한 정보 제공이 오히려 수용자의 선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자체가 신뢰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과 AI의 뉴스 생산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투명성 요구는 오히려 강화되고 그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디아코파올로스(Diakopoulos, 2016, 2019)는 알고리즘 저널리즘에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인간의 개입, 데이터, 모델, 추론, 알고리즘적 존재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수용자에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 투명성 요건임을 강조하였다. 디아코파올로스와 콜리스카(Diakopoulos & Koliska, 2017)는 이를 데이터·모델·추론·인터페이스의 네 층위로 세분화하여, 정보의 질과 샘플링 방법(데이터), 변인과 가중치 및 소스 코드(모델), 추론 유형과 오류 분석(추론), 알고리즘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인터페이스)를 각각의 투명성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애너니(Ananny, 2016)는 이러한 기술적 투명성이 단순한 코드 공개가 아니라 이용자의 알고리즘 해독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 제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되르와 홀른부흐너(Dörr & Hollnbuchner, 2017)는 자동화 뉴스 윤리를 조직·전문가·수용자 영역으로 나누고 입력·과정·출력 각 단계에서 데이터 출처 공개, 자동화 과정 공개, 코드 공개, 결과 모니터링 등 구체적 투명성 실천을 제시하였다.

AI 투명성 개념은 최근 들어 더욱 정교하게 구조화되고 있다. 애너니와 크로포드(Ananny & Crawford, 2018)는 AI 투명성을 세 가지 수준에서 정의한다.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은 AI의 결정 과정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은 입력·처리·출력 과정을 기록하여 문제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정보 공개(disclosure)는 AI가 개입된 콘텐츠임을 명시하고 그 영향력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층위는 전통적인 '취재원 공개' 중심의 투명성을 기술적·절차적·고지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AI 시대 투명성 개념의 재구성은 단순한 규범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저널리즘 규범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한다. 전통적 투명성이 '기자'와 '취재 과정'을 주 대상으로 했다면, AI 시대의 투명성은 '기자·뉴스룸·알고리즘·데이터·학습 과정·이용자'라는 다층적 행위자를 포괄해야 한다(오세욱·김수아, 2016). 공개되어야 할 정보 역시 취재원과 인용문을 넘어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한계, 모델의 가정, AI의 개입 정도, AI 생성

콘텐츠의 식별 수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AI 시대의 투명성 역시 몇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첫째, 알고리즘 코드의 전면 공개는 언론사나 플랫폼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오세욱·김수아, 2016). 바크터 등(Wachter, Mittelstadt, & Russell, 2017)이 제안한 '조건법적 설명(counterfactual explanations)'은 모든 요인을 공개하기보다 이용자가 자동화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둘째, 투명성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 경우 '보여 주기식' 의례로 전락할 수 있다. 신삼수·봉미선(2026)가 지적하듯이 다수 공영방송사가 투명성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을 뿐 구체적 고지 방식을 포함하지 않은 점은 AI 시대 투명성이 직면한 실천적 과제다. 셋째, 생성형 AI의 환각, 편향, 설명 불가능성은 투명성이 '모든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를 선택·설계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Mittelstadt, 2019).

이러한 맥락에서 AI 시대의 투명성은 객관성의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 객관성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위에서 이를 보완·재구성하는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워드(Ward, 2015)의 지적처럼 투명성은 다른 가치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홀로 책임 있는 저널리즘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AI가 뉴스 생산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투명성은 기계와 인간이 얽힌 판단 과정을 가시화하고 수용자에게 그 과정을 이해할 조건을 제공하는 가장 실질적인 규범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 저널리즘 현장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투명성 관련 문제들을 검토한다.

3. 저널리즘 현장의 AI 활용과 드러난 문제들

1) 저널리즘 현장의 AI 활용 사례들

사례 1. 지난 2023년 5월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2021년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 당시의 공권력 남용을 고발하기 위해 생성형 AI 이미지를 활용했다. 2021년 콜롬비아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최소 3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다수의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AI로 생성된 실사풍 이미지(경찰에 끌려가는 여성의 모습 등)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하지만, 이미지 내의 기술적 결함(뒤바뀐 국기 색상, 왜곡된 얼굴 등)이 발견되며 조작 논란이 일었고, 앰네스티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미지를 즉각 삭제했다.¹⁾

사례 2. 지난 2023년 11월 유명 스포츠 매체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ports Illustrated, 이하 SI)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 AI 기자들을 내세워 기사를 게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매체는 외부 마케팅 대행사인 애드본 커머스(AdVon Commerce)와 협력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드루 오티스(Drew Ortiz)', '소라 다나카(Sora Tanaka)'와 같은 가상의 기자 프로필과 AI로 생성된 얼굴 사진을 사용했다. 이들은 야외 활동 전문가나 피트니스 전문가 등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인물로 묘사되었으나, IT 전문 매체 퓨처리즘(Futurism)의 보도를 통해 이들의 사진이 AI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허위임이 폭로되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기자들의 기사는 즉각 삭제되었으며, 발행사인 아레나 그룹(The Arena Group)은 기사 내용은 인간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필명 사용 등 부적절한 관행을 인정하고 해당 대행사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했다.²⁾

1) Taylor, L. (2023, May 2). Amnesty International criticised for using AI-generated image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may/02/amnesty-international-ai-generated-images-criticism>
 2) Sato, M. (2023, November 28). Sports Illustrated reportedly published articles from fake AI authors.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3/11/27/23978389/sports-illustrated-ai-fake-authors-advon-comme>

사례 3. 지난 2023년 12월,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스타트업 ‘채널 1(Channel 1)’³⁾이 세계 최초의 24시간 AI 뉴스 채널 론칭 계획을 발표하며 저널리즘 업계에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도 AI가 실시간 뉴스 피드와 신뢰할 수 있는 소스(trusted Sources)를 바탕으로 뉴스 영상을 자동 생성하여 보도한다는 점이다. 채널 1은 실제 인간 모델을 정교하게 디지털 스캔하여 만든 가상 앵커를 활용하며, 시청자의 관심사나 사용 언어에 맞춰 뉴스를 실시간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핵심 기술로 내세웠다. 그러나 직접적인 현장 취재 인력 없이 알고리즘이 시각 자료를 재구성하는 방식은 저널리즘의 본질인 ‘현장 목격’의 가치를 훼손하고, 가상의 영상이 실제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채널 1 측은 AI가 인간의 공감 능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나, 13단계의 인간 검증 공정(Human-in-the-loop)을 통해 AI의 환각 현상을 방지하고 뉴스 제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인간 기자의 ‘현장성’과 ‘인간적 유대’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I 뉴스가 짧은 단신 보도를 넘어 심층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⁴⁾

사례 4. 지난 2024년 6월, 미국 방송사 NBC는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전설적인 스포츠 캐스터 알 마이클스(Al Michaels)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하여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Peacock)에서 제공되는 ‘데일리 올림픽 리캡(Your Daily Olympic Recap)’은 마이클스의 과거 방송 데이터를 학습한 AI 음성을 통해 시청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요약 뉴스를 제공한다. 이 AI 음성에는 마이클스 특유의 어조와 전문성을 정교하게 재현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인사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처음에는 해당 제안에 회의적이었던 마이클스 본인조차 완성된 AI 음성을 듣고 “놀랍고 조금은 두렵다”며 자신의 목소리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사례는 숙련된 저널리스트의 고유한 자산인 ‘음성’이 데이터화되어 상업적으로 복제되고,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서 대중을 위한 개인화된 서비스로 치환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⁵⁾

사례 5. 지난 2025년 3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 Times)의 소유주 패트릭 순시옹(Patrick Soon-Shiong)은 오피니언 기사에 AI가 생성한 정치적 성향 등급과 반대 관점의 목록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인사이트(Insights)’ 기능을 도입했다. 이 도구는 개별 기사의 정치적 입장을 좌파부터 우파까지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을 요약하여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른바 ‘에코 챔버(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AI 분석 결과는 발행 전 기자나 편집자의 검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으며, 이에 대해 LA 타임스기자 노조(LATimes Guild)는 검증되지 않은 AI 콘텐츠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고 인간 저널리스트의 비판적 분석 기능을 기술로 대체하려 한다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오피니언 전문 인력마저 신문을 떠나는 등, 사주의 편집권 개입과 AI 도입이 맞물려 전통적인 저널리즘 노동이 소외되는 현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⁶⁾

rce-gannett-usa-today

3) <https://www.channel1.ai/>

4) Stokel-Walker, C. (2024, January 26). TV channels are using AI-generated presenters to read the news. The question is, will we trust them? *BBC*.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40126-ai-news-anchors-why-audiences-might-find-digitally-generated-tv-presenters-hard-to-trust>

5) Arkin, D. (2024, June 27). NBC to use AI-generated version of Al Michaels' voice during Summer Olympics. *NBC News*. <https://www.nbcnews.com/news/nbc-use-ai-generated-version-al-michaels-voice-summer-olympics-rcna159108>

사례 6. 지난 2025년 5월, 시카고 선타임스(Chicago Sun-Times)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The Philadelphia Inquirer)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이 유명 작가들의 허위 저서가 포함된 여름 추천 도서 목록을 게재하여 언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5년 여름 독서 목록(summer reading list)’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이 목록에는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의 기후 소설로 묘사된 ‘타이드워터 드림스(Tidewater Dreams)’나 2025년 풀리처상 수상자인 퍼시벌 에버렛(Percival Everett)의 ‘더 레인메이커스(The Rainmakers)’ 등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책 10권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15권 중 단 5권만이 실제 도서였다. 해당 콘텐츠는 외부 업체인 킹 피처스(King Features)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게재된 것이었으나, 프리랜서 작가 마르코 부스카글리아(Marco Buscaglia)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내용을 작성한 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송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건은 해당 언론사가 재정난으로 전체 인력의 20%를 감축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숙련된 내부 인력의 노동이 저렴한 ‘AI’로 대체될 때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⁷⁾

사례 7. 지난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과정에서 발생한 ‘미나브(Minab) 여학교 폭격 사건’의 희생자 묘역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었으나, 구글의 제미니(Gemini)와 X의 그록(Grok) 등 주요 AI 챗봇들이 이를 ‘가짜’ 혹은 ‘과거의 다른 사건’으로 오인해 답변하며 논란이 발생했다. 2026년 2월 28일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에 의해 170여 명의 여학생이 사망한 비극적인 현장을 담은 이 사진에 대해, 제미니는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현장이라고 설명했고 그록은 2021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집단 매장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권위 있는 어조로 생성된 AI의 ‘환각’은 실제 전쟁 범죄의 참상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AI 슬롭(Slop)’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오류가 이용자들이 AI 요약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과 맞물려, 저널리즘의 사실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고 인권 유린의 기록을 지워버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⁸⁾

사례 8. 최근 니먼 랩(Nieman Lab)은 X(옛 트위터)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외부 링크를 포함한 게시물들의 노출과 관여도(Engagement)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언론사 및 뉴스 큐레이션 계정 1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뉴욕 타임스(NYT)와 CNN 등 트윗의 약 90%에 외부 링크를 포함하는 전통적 미디어들은 방대한 팔로워 수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관여도를 보였다. 반면, 링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로만 뉴스를 전달하는 계정들은 압도적인 관여도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특히 폭스 뉴스(Fox News)는 링크 비중을 약 9%로 낮추고 영상과 그래픽 중심의 포스팅 전략을 취함으로써 전통 매체 중 유일하게 알고리즘의 혜택을 입증했다. 이러한 ‘링크 억제’ 현상은 이용자를 플랫폼 외부로 보내지 않고 내부 콘텐츠에 머물게 하려는 메타(Meta)의 뉴스 탭 폐쇄 및 링크 노출 하향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플랫폼 생태계가 뉴스 미디어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⁹⁾

6) Beckett, L. (2025, March 3). LA Times to display AI-generated political rating on opinion piece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mar/03/la-times-ai-opinion-rating>

7) Blair, E. (2025, May 20). How an AI-generated summer reading list got published in major newspapers. *NPR*. <https://www.npr.org/2025/05/20/nx-s1-5405022/fake-summer-reading-list-ai>

8) McClure, T. (2026, March 17). A photo of Iran's bombed schoolgirl graveyard went viral. Why did AI say it wasn't rea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6/mar/17/atrocity-ai-slop-verify-facts-iran-minab-graves>

9) Owen, L. H. (2026, April 8). Do links hurt news publishers on Twitter? Our analysis suggests yes. *Nieman Lab*. <https://www.niemanlab.org/2026/04/do-links-hurt-news-publishers-on-twitter-our-analysis-suggests-yes/>

2) 사례들의 유형화와 검토

지금까지 제시한 10개의 사례는 발생 시점(2023~2026년), 지역(북미·유럽·한국), 매체 유형(신문·방송·통신·플랫폼), 활용 단계(취재·작성·이미지 생성·음성 복제·편집·유통) 측면에서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AI가 저널리즘에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이상 몇몇 특정 매체나 기술에 국한된 일시적 사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 사례들에서 드러난 문제의 성격을 유형화하면 크게 세 갈래로 묶을 수 있다.

첫째 사실성의 훼손과 이용 고지의 부족이다. 시카고 선타임스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허위 도서 목록 사건(사례 6), KBS 뉴스9의 AI 생성 전쟁 영상 사용 사건(사례 10), MBN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체포 관련 AI 이미지 사용 사건(사례 9), 국제엠네스티의 AI 생성 이미지 논란(사례 1), 주요 AI 챗봇들이 미나브 여학교 폭격 사건의 실제 사진을 ‘가짜’로 오인한 사건(사례 7) 등은 모두 AI가 실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하거나 실제 사건을 왜곡·부정하는 방식으로 저널리즘의 사실성을 훼손한 사례들이다. 특히 사례 7은 AI의 오류가 저널리즘의 사실 검증 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어조의 응답을 통해 실제 인권 유린의 기록 자체를 지워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거나 실제 촬영 영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사례 10의 KBS 사례에서 확인되듯, 공영방송의 자체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실제 제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성의 훼손과 이용 고지 실패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고지가 부재할 때 사실성 훼손의 파급력이 더욱 증폭되는 구조적 결합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저자성(authorship)과 정체성의 위기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허위 AI 기자 사건(사례 2), 채널 1의 24시간 AI 뉴스 채널(사례 3), NBC의 알 마이클스 AI 음성 복제(사례 4)는 ‘누가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가’라는 저널리즘의 근본적 주체 문제에 균열을 일으킨다. 가상의 기자 프로필과 얼굴, 디지털 스캔된 가상 앵커, 복제된 음성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인간 행위자’의 실재성을 흐리게 만든다. 특히 사례 4는 숙련된 저널리스트 개인의 고유한 자산인 음성이 데이터화되어 상업적으로 복제되고 대규모 이벤트에서 개인화 서비스로 치환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AI 시대의 저자성이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전문적 노동 자체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저자성의 위기는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이 기자 개인의 이름·얼굴·목소리를 통해 구축해 온 책임성의 기반을 흔들다는 점에서, 단순한 윤리적 쟁점을 넘어 저널리즘의 인식론적 권위 자체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셋째 편집권·노동 구조와 플랫폼 생태계의 재편이다. LA 타임스의 ‘인사이드’ 기능(사례 5)과 시카고 선타임스·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사건(사례 6)은 AI 도입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편집 노동의 구조적 재편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낸다. 사례 5는 소유주의 편집권 개입과 AI 도입이 결합되어 전통적 저널리즘 노동이 소외되는 과정을, 사례 6은 인력 감축 이후 외부 대행사와 AI에 위탁된 콘텐츠가 검증 절차 없이 유통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한편 사례 8은 저널리즘이 직접 AI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AI 기반 플랫폼 알고리즘이 뉴스 유통의 생태계 자체를 재구성함으로써 저널리즘의 도달력과 경제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외부 링크를 억제하는 플랫폼 정책은 전통 미디어의 유통 구조를 불리하게 조정하며, 이는 뉴스 생산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뉴스룸 내부의 노동 재편과 뉴스룸 외부의 플랫폼 재편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발생하지만, 둘 모두 AI가 저널리즘의 거버넌스·자원 배분·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긴밀히 얽힌 하나의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 9. 지난 2026년 2월, 종합편성채널 MBN이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체포 소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하며 실제 현장 사진 대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공의 이미지를 사용해 ‘현장 왜곡’ 논란을 빚었다. 해당 AI 이미지는 노동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격렬하게 저항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듯한 구도로 제작되었으나, 실제 체포 당시 현장은 압도적인 경찰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행되는 상황이었으며 격렬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를 AI 기술로 변형하거나 합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언론을 위한 생성형 AI 준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MBN 측은 노조원들의 얼굴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해당 이미지를 현장 사진으로 교체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했으나, 이 사건은 AI 기술이 현장의 실체를 자극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고 저널리즘의 기본인 ‘사실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¹⁰⁾

출처

사례 10. 지난 2026년 4월, 공영방송 KBS가 메인 뉴스인 ‘뉴스9’에서 이란 전쟁 중 발생한 미군 구출 작전 상황을 가상의 AI 생성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하면서 저널리즘 윤리 및 보도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전체 1분 54초의 리포트 중 약 1분가량을 AI 영상으로 생성했으며, 전투기 격추 장면과 동굴에 숨은 군인의 모습, 특수부대 투입 과정 등을 실사풍의 근접 촬영 영상처럼 재구성해 내보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사실 확인이 엄중히 요구되는 전쟁 보도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상상력으로 시각화하여 전쟁을 오락 영화나 게임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특히 실제 촬영 영상을 대체하기 위한 AI 실사 영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위반이자,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사실성을 훼손한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KBS 측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제작했다고 해명했으나, 공영방송으로서 보도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¹¹⁾

[그림] KBS ‘빈라덴 잡은 최정예 부대 투입…“God is good” 첫 무전’ 보도 화면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28303>

10) 윤유경 (2026년 2월 5일). 해고노동자 체포, AI 이미지 만든 MBN…‘현장 왜곡’ 비판.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140>

11) 김예리 (2026년 4월 7일). “갓 이즈 굿” 미군 관점·게임처럼… KBS의 AI 전쟁영상 논란.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492>

3) 투명성 관점에서 사례들에 대한 분석

2장에서 논의한 AI 시대 투명성 개념-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정보 공개(disclosure)라는 세 층위(Ananny & Crawford, 2018)-에 기반하여 10개 사례를 검토해 보면, 각 층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분석은 투명성 원칙이 규범적 선언에 머물 때와 실제 뉴스 생산 현장에서 구현될 때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며, 구체적 실천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보 공개의 층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문제는 AI 사용 사실 자체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거나, 고지되더라도 실사와의 혼동을 방지할 만큼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례 2의 가상 기자 프로필, 사례 6의 AI 생성 허위 도서 목록, 사례 9와 10의 AI 영상은 모두 수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AI 기원을 알지 못한 채 소비한 사례들이다. BBC의 ‘AI 투명성 조언(AI Transparency Advice)’¹²⁾ 등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고지 수단(자막, 워터마크, 고지 문구 등)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적 가능성의 층위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출처·학습 데이터·생성 과정이 기록되고 검증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사례 5의 ‘인사이트’ 기능은 발행 전 기사나 편집자의 검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배포되었으며, 사례 6의 허위 도서 목록은 외부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 사용 사실이 언론사 내부에 공유되지 않은 채 지면에 실렸다. 대부분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내부 투명성(inward transparency)’, 즉, 제작 과정 참여자들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워터마크·프롬프트·소프트웨어 버전 기록 등을 통한 추적 가능성의 확보가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2의 허위 AI 기자 사건 역시 외부 마케팅 대행사와의 협력 과정에서 생성형 AI 개입 사실이 언론사 본체에 제대로 전달·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층위의 실패를 드러낸다. 추적 가능성의 부재는 단순한 기록 누락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검증과 책임 귀속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설명 가능성의 층위에서는, AI가 특정 판단이나 생성 결과를 내놓은 근거와 과정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되는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사례 5의 정치적 성향 등급은 5단계 분류의 기준과 근거가 수용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사례 7의 챗봇 오류 역시 왜 AI가 미나브 여학교 폭격 사건의 사진을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현장이나 2021년 인도네시아의 집단 매장지 사진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했다. 이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의 도입을 통해 사실성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여전히 실무 차원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명 가능성의 결여는 AI의 오류를 수용자가 스스로 식별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AI 시대 저널리즘이 지향해야 할 인식론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

이상의 세 층위에 대한 분석은 한 가지 공통된 결론으로 수렴된다. 10개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일한 기술적 오류나 특정 조직의 일탈이 아니라, 투명성 원칙의 세 층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인권 단체, LA 타임스나 KBS와 같은 주류 언론,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이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대응이 개별 조직의 자율 규제나 선언적 가이드라인 제정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AI 시대 저널리즘 투명성의 구체적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4. AI 시대 저널리즘 투명성의 구현 방안

3장에서 제시한 사례들의 분석은 AI 시대 저널리즘의 문제가 특정 조직의 일탈이 아니라 투명성

세 층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콘텐츠·제작 공정·거버넌스의 세 층위로 나누어 제안한다.

1) 콘텐츠 층위: 식별·고지·설명의 체계화

콘텐츠 층위의 투명성은 수용자가 직접 마주하는 뉴스 결과물에서 AI 개입을 식별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다. 3장의 사례 1, 6, 7, 9, 10에서 확인되듯, 수용자가 AI 생성물임을 모른 채 콘텐츠를 수용할 때 사실성 훼손의 파급력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AI 개입 수준에 따른 차등 고지 체계가 필요하다. 번역·요약·교열 등 문체 보정 수준의 보조적 활용과, 이미지·영상·음성 생성과 같이 실재 여부를 직접 재구성하는 활용은 투명성 요구의 무게가 다르다. 모든 AI 활용에 동일한 고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고지의 의미가 희석되어 ‘보여주기식’ 의례로 전락할 수 있다(Ward, 2015). 특히 사례 9·10과 같이 실사용으로 사건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BBC의 ‘AI 투명성 조언’이 권고하는 맥락 상세 설명 수준의 고지가 원칙적으로 요구되며(최선욱, 2024), 딥페이크나 역사적 사건의 허위 재현 등 수용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강화된 고지 절차가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시각적·청각적 표시 장치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APA(2024)가 제안한 하단 1/3 자막, 고유 프레임, 색상 조정, 워터마크, 나레이터의 언급 등 다중 장치는 단일 수단의 한계를 보완한다. 단일 워터마크는 플랫폼 유통 과정에서 제거되거나 가려질 수 있고, 자막만으로는 소리를 끈 상태의 이용 환경에서 고지 효과가 상실된다. 국내에서도 언론 단체 차원의 공통 표기 규약이 마련되어야 사례 10처럼 개별 조직의 내부 규정만으로는 방지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튜브·포털 등 2차 유통 과정에서도 고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와 시각적 표시를 결합한 이중 장치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설명 가능성의 실무적 구현이 요구된다. 사례 5의 정치적 성향 등급과 사례 7의 챗봇 오류는 AI 판단의 근거가 수용자에게 제시되지 못할 때 발생한 문제다. 설명 가능한 AI의 도입과 함께, 참조 자료·생성 조건·판단 한계를 수용자 친화적 언어로 병기하는 방식이 실무에 적용되어야 한다. 오세욱·김수아(2016)가 제안한 hNews_k 포맷을 확장하여 AI 관련 메타데이터(사용 모델, 개입 범위, 검증 담당자 등)를 구조화된 형태로 기록하는 방식은 이러한 설명 가능성의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원할 때는 상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일상적 기사 소비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계층적 공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2) 제작 공정 층위: 추적 가능성과 인간 감독의 제도화

제작 공정 층위의 투명성은 뉴스룸 내부에서 AI의 개입 경로를 기록하고 인간 감독을 제도화하는 문제다. 3장의 사례 2·3·4·6은 저자성의 위기와 추적 가능성의 부재가 맞물려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크게 세 축으로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내부 투명성(inward transparency)의 제도화다. APA(2024)가 권고하는 큐 시트(cue sheet) 방식, 즉 프롬프트 기록, 소프트웨어 버전, 생성 일시, 참조 자료의 저작권 상태, 사용 위치 등을 구조화하여 기록하는 체계는 사후 검증과 책임 귀속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기록은 사건이 발생한 뒤 문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적 자원일 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AI 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합성 미디어 삽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로도 작동한다(신삼수·봉미선, 2026). 특히 사례 2와 6처럼 외부 대행사·프리랜서가 생성형 AI를

12) <https://www.bbc.co.uk/supplying/working-with-us/ai-transparency/>

활용한 경우 그 사실이 언론사 본체에 공유되지 않아 문제가 확산된 사례는, 외주 콘텐츠에 대한 AI 사용 사전 신고와 기록 의무가 제도화될 필요를 보여 준다. 되르와 홀른부흐너(Dörr & Hollnbuchner, 2017)가 제시한 조직·전문가·수용자 차원의 입력-과정-출력 윤리 틀은 이러한 기록 체계가 조직 내부의 단일 단계가 아니라 전 제작 공정에 걸친 다층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인간 감독(Human-in-the-Loop)의 단계별 설계다.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공통적으로 'AI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다층적 인간 감독과 최종 승인 구조를 두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신삼수·봉미선, 2026). 그러나 감독은 선언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며, 뉴스 생산 단계별로 어떤 판단이 인간에게 유보되는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김학재(2026)의 기자 직무 분석은 현장 취재, 취재원 관계 관리, 실시간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이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영역임을 보여 주며, 생성형 AI가 제시한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검수는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 기자들의 인식 또한 확인된다. 특히 AI의 환각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출처가 그럴듯한 링크와 함께 제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확인'이라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AI 생성물에 대한 별도의 추가 검증 단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례 3(채널 1)의 '13단계 인간 검증'이 형식적 절차로 그칠 위험을 경계하면서, 기획·검증·판단 각 단계에서 편집자의 구체적 개입 지점과 유보 권한을 설계하는 작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셋째, 저자성과 관련해서는 가상 기자·합성 음성·디지털 앵커의 사용에 관한 최소 원칙이 요구된다. 사례 2·3·4가 공통적으로 보여 주듯, 실재하는 기자의 이름·얼굴·목소리를 통해 축적된 책임성의 기반이 허구적 장치로 대체되는 경우 수용자에 대한 고지와 책임 주체의 명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례 4처럼 숙련된 저널리스트의 음성이 데이터화되어 복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복제 음성 사용의 범위와 기한, 수용자에 대한 고지 방식을 포함한 포괄적 원칙이 필요하다. 저자성의 혼란은 단순한 표시의 문제가 아니라 뉴스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저널리즘의 인식론적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 거버넌스 층위: 조직·산업·플랫폼의 책무 체계

거버넌스 층위의 투명성은 개별 뉴스룸을 넘어선 제도적·산업적 책무 체계의 문제다. 사례 5·6·8이 보여 주듯, AI 문제는 개별 기사나 콘텐츠 차원을 넘어 편집권·노동 구조·플랫폼 생태계와 맞물려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언론사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례 10의 KBS 사례는 가이드라인의 존재 자체가 실제 제작 현장에서의 작동을 보증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BBC의 AI 위험 자문 그룹(AIRA)처럼 법률·편집 정책·정보보안·데이터 보호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검토 기구, 그리고 제작 단계별 승인 절차를 결합한 이중 거버넌스 구조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신삼수·봉미선, 2026). 가이드라인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기적 개정 체계, 현장 교육 프로그램, 위반 사례에 대한 사후 평가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 5가 드러낸 소유주의 편집권 개입과 AI 도입의 결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편집국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 예컨대 AI 도구 도입에 관한 편집국 구성원의 협의 권한 보장 등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공동체 차원의 공동 규범이 필요하다. 개별 언론사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사례 6처럼 프리랜서와 외부 업체를 매개로 한 콘텐츠 유통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어렵다. 언론 단체 차원의 공통 고지 표준, AI 투명성 자율 인증 체계, 시민·독자가 오류를 지적하고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투명성(Karlsson, 2010) 채널의 제도화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기자 평판 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AI 활용 이력의 축적은 개별 사례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외부 규제가 아니라 자율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사례 8이 보여 주듯, 언론사가 AI를 직접 활용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뉴스 유통을 구조적으로 재편한다. 사례 7의 AI 챗봇 오류 또한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AI 서비스의 투명성 문제와 직결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 뉴스 콘텐츠에 대한 가중치, AI 요약·추천 서비스의 근거에 대한 공개 의무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알고리즘의 전면 공개는 영업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디아코파울로스(Diakopoulos, 2016)가 제안한 인간의 개입·데이터·모델·추론·알고리즘적 존재의 다섯 차원 중 수용자의 이해와 검증에 필수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다. 알고리즘 변경 이력의 자동 공개, AI가 생성한 요약·추천 결과의 근거 표시, 뉴스 콘텐츠 처리 방식에 대한 정기 보고 등은 완전한 공개 없이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간적 방안이다.

이상의 제안들은 공통적으로 투명성이 '모든 것을 보여 주기'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설계하는 문제임을 전제한다(Mittelstadt, 2019). 바크터 등(Wachter et al., 2017)의 조건 법적 설명 개념이 시사하듯, 영업권과 수용자의 이해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설계의 감각이 AI시대 투명성의 실천적 과제다. 이는 기술적 장치의 나열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자신의 판단 과정을 수용자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규범적 실천으로 투명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5. 결론

이 연구는 AI 기술이 뉴스 생산 전반에 관여하는 현 시점에서, 저널리즘의 전통적 핵심 가치인 객관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규범적 틀로서 투명성의 개념과 구현 방안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객관성 개념의 역사적 전개를 살피고 AI시대 객관성이 직면한 도전을 검토한 뒤, 투명성이 새로운 핵심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맥락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북미·유럽·한국에서 발생한 10개의 AI 활용 사례를 사실성 훼손과 이용 고지 부족, 저자성과 정체성의 위기, 편집권·노동 구조·플랫폼 생태계의 재편이라는 세 유형으로 정리하고, 애너니와 크로포드(Ananny & Crawford, 2018)의 세 층위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콘텐츠·제작 공정·거버넌스의 세 층위에서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AI시대 저널리즘 객관성의 재성찰을 투명성 개념의 재구성과 결합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AI가 객관성에 제기하는 도전과 투명성 개념의 디지털 전환 등을 주로 다루었으나, 두 논의를 하나의 규범적 지형 안에서 연결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 연구는 코바치와 로젠스탈의 방법론적 객관성 개념을 AI시대로 확장하여, 투명성이 객관성의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객관성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위에서 이를 보완·재구성하는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저널리즘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투명성 세 층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AI 투명성에 관한 기존 논의들이 주로 이론적·규범적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 연구는 구체적 사례 속에서 각 층위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투명성이 선언적 규범에서 실천적 설계의 문제로 이동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사실성 훼손과 이용 고지 부족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결합된 현상이라는 점, 문제의 양상이 개별 조직이나 기술이 아니라 행위자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투명성 구현을 콘텐츠·제작 공정·거버넌스의 세 층위로 나누어 구체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외 공영방송의 AI 가이드라인 연구, 기자 직무의 AI 대체 가능성 분석, 투명성 기술 제안 등 최근 국내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한국적 맥락에 적용 가능한 제안을 도출하려 시도했다.

다만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10개의 사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서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사례 선정 과정에서 시점·지역·매체 유형·활용 단계의 분포를 최대한 고려하였으나, 사례 수 자체가 제한적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된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뉴스룸 내부에서 처리되거나 수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일상적 AI 활용의 문제들은 이 분석 틀에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이 2차 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뉴스룸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을 경험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하였다. 4장에서 제안한 구현 방안들 역시 해외 사례와 선행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수용되고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검증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이어진다. 보다 체계적인 사례 수집과 국제 비교를 통해 AI 시대 투명성 실패의 양상을 정교하게 유형화하는 작업, 뉴스룸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규범이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조건을 규명하는 질적 연구, AI 고지 방식이 수용자의 신뢰와 비판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사용자 연구 등이 추후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I의 뉴스룸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며, 기계와 인간이 얽힌 판단 과정 전체를 가시화하고 책임지는 규범으로서 투명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그러한 논의의 한 출발점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
 김연식 (2009). 방송 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161-186쪽.
 김영옥·진민정·강신규 (2014). <저널리즘의 품질>.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학재 (2026). <인공지능(AI) 시대 기자 역량의 대체 가능성 탐색: 방송기자 직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디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대민 (2023). ‘통과하면 사실로 인정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가: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한 사실성 제도로써 언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언론과 사회> 31권 2호, 137-179쪽.
 박소영·이정현 (2023). 팩트체킹 인공지능 기술과 사실성의 역학: 현장 참여자의 심층 인터뷰 분석. <한국언론학보> 67권 4호, 238-271쪽.
 박아란 (2024). 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 언론 관련 판결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10권 2호, 1-50쪽.
 신삼수·봉미선 (2026).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 비교·분석 연구. <한국소통학보> 제25권 11호, 235-270쪽.
 오세욱 (2020). 자동화 결과물이 드러내는 편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커뮤니케이션 이론> 16권 3호, 5-50쪽.
 오세욱·김수아 (2016). <디지털 저널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제안>.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민웅·이창근·김광수 (1993). 보도 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언론인과 시청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36권, 180-213쪽.
 이정현·박소영 (2024). 인공지능 팩트체크와 ‘사실성’의 기술사회적 정의. <한국언론학보> 68권 4호, 119-157쪽.
 최선욱(2024). 공영미디어 AI 윤리원칙의 동형화 분석. <언론정보연구> 61권 4호, 5-52쪽.
 최영재 (2004). 언론 공정성의 구성과 실천.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전환기의 한국형 방송저널

리즘>, 253-286쪽.

Abumansour, A. S., & Zubiaga, A. (2023). Check-worthy claim detection across topics for automated fact-checking. *PeerJ Computer Science*, 9, e1365. <https://doi.org/10.7717/peerj-cs.1365>
 Ananny, M. (2016). Toward an ethics of algorithms: Convening, observation, probability, and timeliness.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41(1), 93-117. <https://doi.org/10.1177/0162243915606523>
 Ananny, M., & Crawford, K. (2018). Seeing without knowing: Limitations of the transparency ideal and its application to algorithmic accountability. *New Media & Society*, 20(3), 973-989. <https://doi.org/10.1177/1461444816676645>
 Archival Producers Alliance. (2024). Generative AI Initiative. <https://www.archivalproducersalliance.com/apa-genai-initiative>
 Broussard, M., Diakopoulos, N., Guzman, A. L., Abebe, R., Dupagne, M., & Chuan, C. H.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ournalis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6(3), 673-695.
 Carlson, M. (2019). News algorithms, photojournalism and the assumption of mechanical objectivity. *Digital Journalism*, 7(8), 1117-1133.
 Chadha, K. & Koliska, M. (2015). Newsrooms and transparency in digital age. *Journalism Practice*, 9(2), 215-229.
 Chadha, K., & Koliska, M. (2015). Newsrooms and transparency in the digital age. *Journalism Practice*, 9(2), 215-229. <https://doi.org/10.1080/17512786.2014.924737>
 Craft, S., & Heim, K. (2009). Transparency in journalism: Meanings, merits, and risks. In L. Wilkins & C. G. Christians (Eds.), *The handbook of mass media ethics* (pp. 217-228). New York: Routledge.
 de-Lima-Santos, M.-F., & Ceron, W. (2024).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AI guidelines in global newsrooms. *Journalism Studies*, 25(2), 215-232.
 Deuze, M. (2005). What is journalism?: Professional identity and ideology of journalists reconsidered. *Journalism*, 6(4), 442-464.
 Diakopoulos, N. (2016). Accountability in algorithmic decision mak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59(2), 56-62. <https://doi.org/10.1145/2844110>
 Diakopoulos, N. (2019). *Automating the news: How algorithms are rewriting the media*. Harvard University Press.
 Diakopoulos, N., & Koliska, M. (2017). Algorithmic transparency in the news media. *Digital Journalism*, 5(7), 809-828.
 Dörr, K. N., & Hollnbuchner, K. (2017). Ethical challenges of algorithmic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5(4), 404-419.
 Friend, C.(2007). Gathering and sharing information. in Friend. C & Singer, J. (Eds.). *Online Journalism Ethics: Traditions and transition*(pp. 54-79). New York: M. E. Sharpe.
 Guo, Z., Schlichtkrull, M., & Vlachos, A. (2022). A survey on automated fact-checking.

Transaction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0, 178-206.
https://doi.org/10.1162/tacl_a_00454

- Jurvetson, S. (2006). The Dichotomy of Design and Evolution. Retrieved from <http://jurvetson.blogspot.kr/2006/07/dichotomy-of-design-and-evolution.html>
- Karlsson, M. (2010). Rituals of transparency: Evaluating online news outlets' uses of transparency ritual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Sweden. *Journalism Studies*, 11(4), 535-545. <https://doi.org/10.1080/14616701003638400>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Danvers, MA: Three Rivers Press. 이재경(역).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Merrill, J. C. (1977). *Existential journalism*. Hastings House.
- Merrill, J. C., & Lowenstein, R. L. (1971). *Media, Messages and Men: New Perspectives in Communications*. David Mckay & Company.
- Mittelstadt, B. (2019). Principles alone cannot guarantee ethical AI. *Nature machine intelligence*, 1(11), 501-507.
- Pavlik, J. V. (2000). The impact of technology on journalism. *Journalism Studies*, 1(2), 229-237.
- Smith, S. (2013). Traditional journalistic ethics do not fit the internet well. in Merino, N. (Eds.). *Media Ethics*(pp. 154-132). Farmington Hills, MI: Greenhaven Press.
- Sonni, A. F., Hafied, H., Irwanto, I., & Latuheru, R. (2024). Digital newsroom transform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journalistic practices, news narratives, and ethical challenges. *Journalism and Media*, 5(4), 1554-1570.
- Wachter, S., Mittelstadt, B., & Russell, C. (2017). Counterfactual explanations without opening the black box: Automated decisions and the GDPR.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31(2), 841-887.
- Ward, S. (2004). *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이은택 역(2007). <언론 윤리의 재발견: 객관성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탐구>. 서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Ward, S. (2015). The magical concept of transparency. In L. Zion & D. Craig (Eds.). *Ethics for digital journalists: Emerging best practices* (pp. 45-58). New York, NY: Routledge.
- Westerstå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General premises.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세션 2: AI 대전환기, 뉴스와의 결별인가 재결합인가

발제1

관심은 높고 신뢰는 신중하다: AI 저널리즘 수용 조건과 이용자 인식

김영주(한국언론진흥재단), 정용국(동국대), 정재민(KAIST)

한국언론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대주제세션 II

관심은 높고 신뢰는 신중하다:
AI 저널리즘 수용 조건과 이용자 인식

김영주·정용국·정재민
2026.5.8.

✓ AI 저널리즘의 부상과 이용자 인식 지형: 왜 '이용자'인가?

1. 생성형 AI, 저널리즘의 근간을 흔들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적 보조를 넘어 저널리즘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2. 기대와 우려의 공존: 연결인가, 위협인가?

- 기대(연결성 향상): CNN CEO 마크 톰슨은 AI가 기존 검색 엔진보다 뉴스와 독자를 더 정교하게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낙관
- 우려(신뢰의 위협): BBC CEO 데보라 터네스는 AI가 사실 왜곡, 인용문 조작, 컨텍스트 부족 등을 야기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 경고

AI가 저널리즘의 강력한 '동료'가 될 수도, 혹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3. 이용자 관점에서의 변화

- '읽는/보는 뉴스'에서 '질문하는 뉴스'로의 전환
 - AI가 가져올 변화가 언론사와 기자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 AI는 이용자가 뉴스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 뉴스는 단순히 '주어지는 정보를 읽는 것'에서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으로 진화
-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기술적 효용성'과 '윤리적 불안감'과 그 사이의 간극이 AI 저널리즘의 수용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4. 연구의 목적

- 이용자 관점에서 AI 저널리즘의 재정의
 - 그동안의 논의가 주로 언론사 수익 모델이나 기자의 업무 효율성 등 '공급자' 중심
 - AI가 뉴스의 주체성(Authorship)과 편집권을 흐드는 상황에서 이용자는 어떤 기대와 우려를 품고 있는가?
 - AI의 개입이 인간 기자의 역할과 저널리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AI 시대 저널리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경험하는 이용자의 인식 지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AI 저널리즘 연구의 지형

➢ '기술'에서 '관계'로

AI 저널리즘 연구는 AI 기술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묻는 단계를 넘어, 실제 현장의 실천과 사회적 수용성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화

- 기술적 가능성 → 데이터 기반 기사 생성의 속도(효율성)와 정확성 평가
- 저널리즘 실천 → 뉴스룸 내 인간-AI 협업 및 기자의 역할 재정의 + 새로운 윤리와 규범
- 수용자 관계 → 이용자의 인식과 수용,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 분석

➢ AI 저널리즘 관련 연구 영역

1. 생산 영역: 효율성을 넘어선 '협업'의 구조화

- 데이터 기반 기사의 자동 생성 -> 인간 기자와 AI가 역할을 분담하는 증강(Augmentation) 모델로 진화
- AI를 뉴스룸의 새로운 행위자이자 협업 대상으로 인정하고 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에 집중함. (Carlson, 2015; Diakopoulos, 2019)

2. 유통 영역: 개인화 기술과 공적 가치의 충돌

-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가져오는 효율성과 '필터 버블', '확증 편향'으로 인한 공론장 훼손 우려 공존
- 기술적 최적화가 저널리즘의 사회적 가치(다양성)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탐구함 (Noble, 2018; Helberger, 2019)

3. 수용 영역: 기술적 효용과 윤리적 불안의 간극

- AI 뉴스의 편리함(효용성)을 체감하면서, 오보나 편향성(윤리적 불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 '인식의 간극'
- 이용자가 어떤 '맥락'과 '조건'에서 AI 뉴스를 신뢰하고 수용하는지 그 심리적·사회적 지지선을 파악함 (Fletcher & Nielsen, 2025)

4. 윤리와 규범 영역: 알고리즘 책임성과 거버넌스 구축

- AI의 '블랙박스' 문제, 오보 발생 시 책임성(Accountability) 소재, 투명성 확보와 뉴스룸 내부의 가이드라인 수립 논의
- AI 저널리즘이 공공의 가치에 복무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통제 기제와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 논의 (Ananny, 2016; Diakopoulos, 2019)

✓ AI 저널리즘의 주요 쟁점들

1) 뉴스 생산: 효율화, 품질, 협업

- AI가 반복·정형화 업무를 대체하면서 기자는 심층 보도에 집중 가능한가?
- AI 생성 콘텐츠가 저널리즘적 깊이와 완성도를 담보할 수 있는가?
-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AI 활용은 언론(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가?
- 언론인들에게 AI는 '협력 도구'인가 '직업적 위협'인가?

2) 뉴스 유통: 공정성과 다양성

- 알고리즘 뉴스 추천과 배열이 특정 관점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이용자 행동 패턴 기반 추천은 확증 편향 강화한다 → 필터버블과 에코챔버
- AI의 뉴스 요약·재구성 과정에서 맥락 왜곡, 정보 누락, 출처 불명확 문제 발생
- 개인화 극대화로 구성원 간 공유되는 사실적 기반이 약화되고 공론장 기능 위협

3) 뉴스 소비: 이용자 인식과 경험의 변화

- AI 기사에 대한 단순 신뢰도 비교를 넘어, AI가 뉴스 소비 경험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가?
- 개인화 추천·챗봇 상호작용 증대로 수용자는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되는가?
- AI 작성 기사임을 고지하면 신뢰도가 하락하는 역설적 현상 (공개적 역설?)
- 뉴스 소비 패턴 변화는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에 어떠한 새로운 함의를 제공하는가?

4) 윤리적 쟁점: 투명성, 책임성, 저작권, 편향성

- AI 활용 사실을 독자에게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가 - 투명성의 기준?
- 오류·명예훼손 발생 시 언론사·AI 개발자·알고리즘 설계자 중 누가 책임지는가
-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뉴스 기사의 저작권 보호와 정당한 보상 문제 법적 논쟁 격화
-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배제 또는 왜곡 재현으로 이어질 위험

5) 언론사 조직: 비용절감, 뉴스룸 조정, 기술격차

- AI 자동화로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언론인 일자리 감소 우려 병존
- 대형 언론사와 중소·지역 언론사 간 AI 도입 역량 격차
- AI 트레이너·프롬프트 엔지니어·AI 윤리 감독관 등 새로운 직무의 등장? 조직 구조 재편?
- 개인화 뉴스·대화형 뉴스 등 새로운 수익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

6) 정책 및 제도: 가이드라인, 새로운 규제체계

- 최종 편집 판단과 윤리적 결정은 인간 언론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
- 자율 규제만으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
- 알고리즘 감사 체계,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저작권 보호, 허위정보 대응이 핵심 정책 과제
-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유연한 규제 체계 마련

3. 상황적 수용성 (Contextual Acceptance)

AI 저널리즘 수용은 기술력이 아닌 뉴스의 성격과 맥락에 달려 있다

- **수용:** 스포츠, 예술, 생활 등 연성(soft) 뉴스 - 실수의 결과가 제한적이고 개인화 가치가 있는 분야
 - * 스포츠, 증권 등 정형화된 데이터 기반의 '사실 중심' 뉴스
- **기피:** 정치, 국제 분쟁, 범죄 등 경성(hard) 뉴스 - 오보가 사회적·민주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 * 해설, 분석, 정치 등 가치 판단과 맥락 이해가 필요한 '심층' 뉴스

(Fletcher & Nielsen, 2024; Newman et al., 2024)

-> AI 저널리즘의 수용조건은 기술력이 아닌 '뉴스 유형'과 '어떤 맥락(Context)'에서 활용되는가에 달려 있음

4. 수용의 비대칭성 (Asymmetry of Acceptance)

- 이용자는 AI 도입의 수혜자가 언론사라고 인식
 - AI 활용이 언론사의 비용 절감·생산 효율에 기여함을 대중은 명확히 인식
 - AI가 자신의 뉴스 경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음
 - AI 뉴스가 더 저렴하고 빠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덜 투명하고 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 공존
 - (Fletcher & Nielsen, 2024; Simon, Nielsen, & Fletcher, 2025)
- > AI 저널리즘의 수용 장벽은 기술 이해 부족이나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온다

✓ 이용자 수용성 관련 기존 연구의 발견들

1. 신뢰의 역설 (Trust Paradox), 공개의 역설

- 과거: AI 기사와 인간 기사를 구별하지 못하며, AI 기사에 객관성을 귀인하는 경향 존재 (Clerwall, 2014; Graefe et al., 2018)
 - 현재: AI 활용 사실을 공개(Disclosure)하면 오히려 기사와 언론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부정적 효과 관찰
 - 내용은 정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신뢰는 낮아진다 (Waddell, 2018; Toff & Simon, 2025)
- > 이용자는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실제 공개는 신뢰를 낮추는 딜레마 확인

2. 편안함 격차 (Comfort Gap)와 가시성

- **편안함 격차** : AI가 만든 뉴스와 인간이 만든 뉴스 사이의 수용도 차이
 - 완전 AI 생산 뉴스에 편안함: **12%** < AI 생산 + 인간 감독: **21%** < 인간 주도 + AI 보조: **43%** < 완전 인간 생산: **62%**
 - > AI 주도성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수용도(willingness to use)가 낮아짐(Fletcher & Nielsen, 2024)
- **백엔드(Back-end) 수용**: 교정·맞춤법(55%), 번역(53%) 등 독자에게 보이지 않는 기술적 보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도
- **프론트엔드(Front-end) 저항**: 다른 독자를 위한 기사 재작성(30%), AI 이미지 생성(26%), AI 앵커·가상 저자(19%) 등 독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영역에서는 강한 불편함 (Simon, Nielsen, & Fletcher, 2025)
 - > AI의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이용자의 심리적 저항선이 가팔라짐

5. 세대별 활용 목적의 분화

- 같은 도구, 다른 기대 - 세대가 AI 뉴스에서 원하는 것이 다르다
 - 18~24세: 뉴스를 더 쉽게 이해하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 (복잡한 정보의 소화 지원)
 - 55세 이상: 최신 뉴스를 빠르게 확인하는 접근성 도구로 활용 (정보 취득 효율화)
- 공통점: 두 세대 모두 AI를 뉴스 생산자가 아닌 '**뉴스 소비 보조 수단**'으로 인식(Fletcher & Nielsen, 2025)
 - > 동일한 AI 뉴스 서비스라도 세대에 따라 기대 가치가 다르며, 수용 조건도 달라진다

6. 기술 친숙성과 신뢰의 분리

- **AI 이용 경험이 저널리즘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
 - 이용 확산: 생성형 AI 이용 경험 40% -> 61%로 급증 (2024->2025, 6개국 평균)
 - 신뢰 정체: 뉴스·저널리즘 영역에서 AI 활용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
- 역설: AI에 가장 익숙한 18~24세에서 AI 기사 신뢰도·이용의사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Fletcher & Nielsen, 2024, 2025)
 - > 기술 친숙성은 AI 저널리즘 수용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AI 저널리즘에 대한 뉴스 이용자 인식조사

➢ 연구 설계

- 조사 대상: 전국 성인 20~60대 1,500명
- 조사 시기: 2025년 7월 14~20일
- 방법: 온라인 패널, 성별·연령·지역 비례할당
- 표본오차: ±2.56%p (95% 신뢰수준)
- 주요 측정 항목 :
 - 생성형 AI 인식·이용 경험
 - AI 활용 뉴스 인식
 - 신뢰도·선호도
 - 투명성·공개
 - AI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우려
 - 인간 기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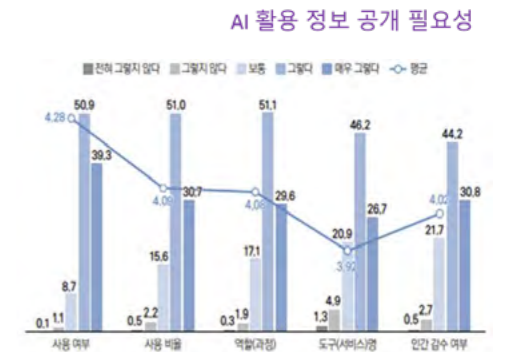


➢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투명성에 대한 강한 요구

- AI 활용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인지한 응답자 36.7%, 나머지 63.3%는 접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AI 활용 뉴스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도: 2.68 (5점 척도)
- 10명 중 9명, AI 작성 기사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응답

■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남

- 응답자의 96.1%, AI 활용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AI 활용 관련 구체적 이용 정보도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명 중 9명 AI 활용 여부 공개 필요성 동의
 - AI 사용 비율·역할·과정·감수 여부 공개 필요성도 평균 4.0 이상(5점 척도)
 - AI 도구 이름(예, 챗지피티) 공개도 절대 다수 지지, '그렇지 않다'는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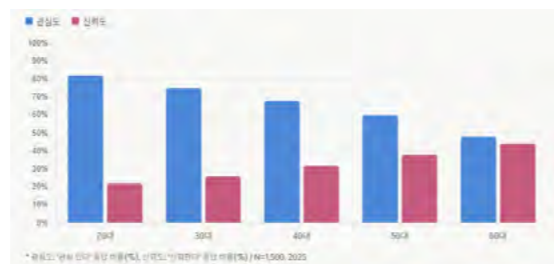
➢ 관심은 높고 신뢰는 신중하다

- 생성형 AI 관심: 관심있다 67.3% (5점척도 3.76)
 -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은 높은편 : 10명 중 7명(67.3%)이 관심이 있다
 - 실제 이용해본 경험 : 65.3%
 - * 일상생활 도움(54.9%), 이미지 생성(51.4%), 뉴스 및 정보검색(49.6%), 번역/외국어(47.8%) 순
- AI에 대한 신뢰도 (5점 척도 3.47)
 - 신뢰한다 32.4%, 보통이다 50.2%, 신뢰하지 않는다 17.4
- 세대 역설 : AI 활용과 지식이 신뢰로 연결되지 않음
 - 젊을수록 이용경험, 관심·인지도 높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낮고,
 - 연령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연령대별 AI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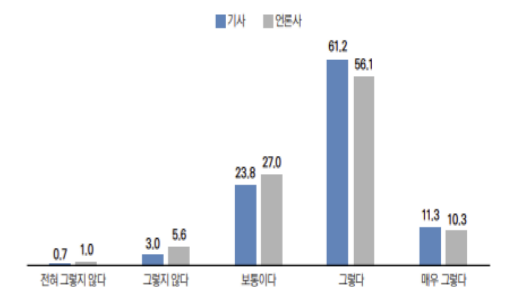
연령대별 AI 관심도·신뢰도 비교



✓ AI 저널리즘 투명성과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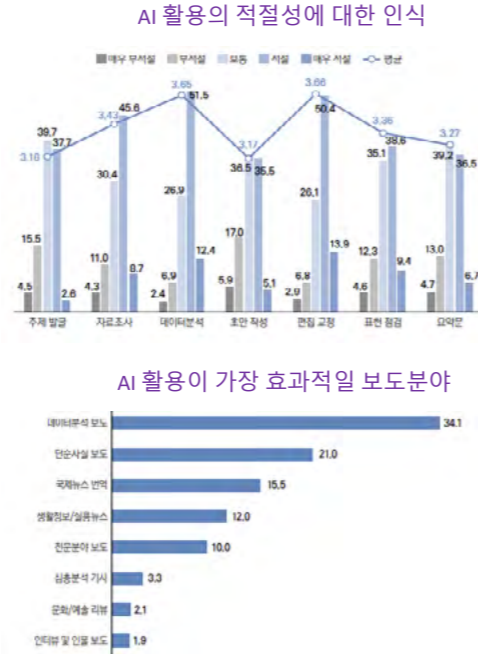
- AI 활용 사실을 공개하면 기사 신뢰도(72.5%가 상승 예상)와 언론사 신뢰도(66.4%)가 높아질 것
- 4명 중 1명은 유보적 입장, 투명성 공개가 신뢰 제고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
- 공개의 역설과 대조
 - Waddell 2018; Toff & Simon 2025: 공개하면 신뢰 하락
 - 한국: 공개하면 신뢰 상승 기대
- * 공개의 역설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 해당, 우리나라처럼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AI 활용 정보 공개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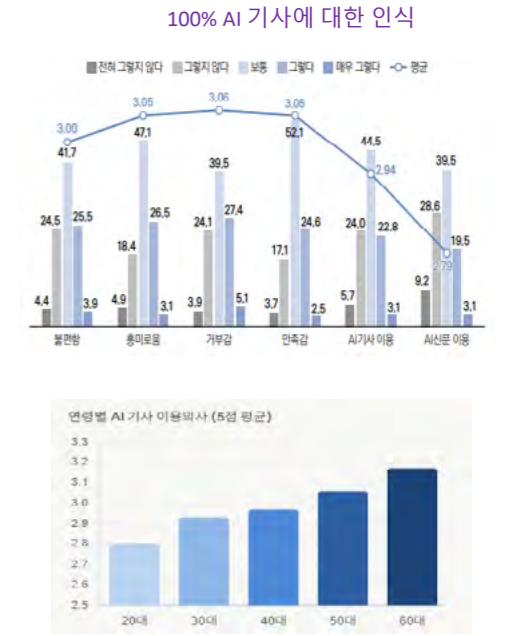
➢ AI 저널리즘의 수용: 상황적 수용성의 확인

- 기자가 '기사 작성 과정에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막연하게 물으면 중립 (2.98)
- 세부 기능별로 물으면 수용성에 차이
 - AI 활용 적절성 높은 영역: 편집·교정(3.66), 데이터 분석(3.65)
 - 적절성 낮은 영역: 초안 작성(3.17), 주제 발굴(3.18)
- AI 활용이 효과적일 분야
 - 데이터 분석 보도(34.1%), 단순 사실 보도(21.0%), 국제 뉴스 번역 (15.5%) 순



➢ AI 단독 작성 기사: 흥미롭지만, 이용은 그닥

- 흥미롭고 품질도 만족스러울 것 같다 vs. 거부감도 있다
- 이용의사는 5점 척도 2.94
- AI 기사만으로 구성된 뉴스 사이트 이용의향은 2.79로 더 낮음
- 흥미로운 역설: 100% AI 기사가 공정성·편향성·정확성 등 저널리즘 가치 5개 항목 모두 인간 기사 기사보다 높은 점수
 - 이는 AI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기보다 언론·언론인에 대한 낮은 신뢰가 반영된 상대적 결과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거부감과 불편함이 가장 크고 이용의사가 가장 낮음
 - 60대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긍정적. 이용의사도 가장 높음



➢ AI 기사에 대한 신뢰도 및 선호도

- 기사 작성 주체에 대한 신뢰도(5점 척도): **인간-AI 협업(3.27) > 인간 기자 단독(3.11) > AI 단독(2.96)** 순. AI 단독 작성 기사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아
- 기사 선호 (%)
 - 인간-AI 협업 기사(37%) > 인간 기자 기사(28.9%) > 차이없음(25%) > AI 단독 기사(9.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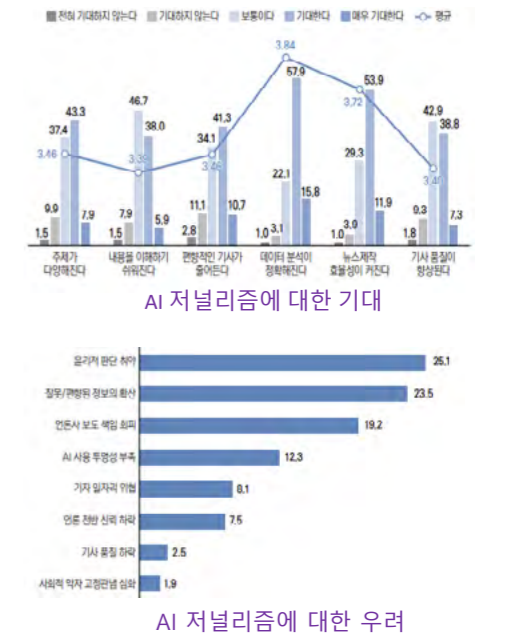


➢ 역할별 우수성 비교

- 인간 기자 우세: 현장 취재·윤리적 판단·감정적 공감,
- AI 우세: 데이터 수집·분석과 빠른 기사 작성
- '사실 확인·검증' 역량은 인간 기자(43.7%), AI(41.3%) : 인간 기자의 팩트체킹 능력에 대한 낮은 신뢰? AI의 팩트체킹 능력에 대한 과대 기대?

➢ AI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와 우려

- 기대: 데이터 수집·분석 정확성(3.84)과 뉴스 제작 효율성(3.72). 편향 감소·주제 다양화·품질 향상 등 저널리즘 가치 전반에서 긍정적 기대
- 우려: AI의 윤리적 판단 취약(25.1%), 편향·오정보 확산(23.5%), 언론사 보도책임 회피(19.2%)에 대한 우려 큼
- 세대별 우려의 결이 다름
 - 20대: 편향·오정보 확산을 최우선 우려 → 정보의 품질에 민감
 - 50~60대: AI 윤리적 판단 취약을 최우선 우려 → 가치 판단 영역 침범에 민감
- AI 저널리즘 시대 뉴스 소비 행태 변화로는 '뉴스 출처를 더 주의 깊게 확인하게 될 것 같다' (64%), '개인 맞춤형 뉴스 소비가 늘어날 것 같다'(55.1%) 응답이 가장 많았음.



➢ AI 시대 인간 기자 역할의 재정의

- 인간 기자와 AI의 관계
 - 보조 도구(45.3%) +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40%)
 - AI가 기자를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에 불과
- 인간 기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 사회적 책임(29.7%) > 현장 보도 (21.8%) > AI의 윤리적 활용과 검증(18.3%) 순
- AI 활용 뉴스 문제 해결 방안
 - AI 활용 투명한 공개(21.3%)
 - 다양한 학습 데이터 확보(19.2%)
 - 윤리 기준 마련(18.5%)
 - 해결 책임의 귀속: 언론인, AI 개발사, 언론사, 정부로 분산



➢ 우려의 결이 다르다

- 이용자: 원론적인 차원의 우려 vs. 언론인: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걱정
 - 이용자의 우려: AI 윤리적 판단 취약 25.1%, 편향·오정보 확산 23.5%, 언론사 책임 회피 19.2%
 - 언론인의 우려: Hallucination - 존재하지 않는 저자-논문, 이야기를 지어낸다
 - 가이드라인 부재 - 애매한 경우 따를 기준이 없다.
 - 윤리 책임의 공백 - AI의 실수로 인한 오보라는 변명은 사회적으로 용납 불가
 - * 언론인들은 AI 활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식과 우려
- 이용자는 '결과'에 대해 우려, 언론인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나' 현장,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우려

✓ AI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의 간극: 이용자 vs. 언론인

➢ 위치가 다르니, 인식도 다르다.

- 결과물을 보는 이용자와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언론인의 위치의 차이
 - 언론인: 과정(Process) 안에 있는 사람.
 - AI를 선택, 활용, 검증, 책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실무에서 매일 마주함
 - AI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가 관심
 - 이용자: 결과물(Output) 앞에 있는 사람.
 - 과정은 보이지 않고, 결과물을 이용하고 평가: '이것은 정확한가,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함
 - AI가 저널리즘(내가 보는 뉴스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심
- 이용자는 AI 저널리즘을 **규범적으로** 바라보고, 언론인은 **실무적으로** 마주한다

➢ 투명성을 보는 눈이 다르다

- 이용자는 '무엇을', 언론인은 '어떻게'
 - 이용자가 원하는 것: 무엇을 공개하느냐
 - AI 활용 여부 공개 필요: 96.1%
 - AI 사용 비율·역할·과정·감수 여부 공개 필요: 평균 4.0점 이상
 - AI 도구 이름(예: ChatGPT) 공개 지지 절대 다수 → "공개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
 - 언론인이 고민하는 것: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 'AI로 제작'이라고 표시했다고 투명성을 지킨 것인가
 - 독자가 그 작은 글씨를 읽었을까
 - CMS 내 AI 활용 항목 세분화, AI 인용 주석 도입 필요를 주장하기도
 - 개인 자율 보고를 넘어 언론사 시스템 차원의 AI 활용 추적 구조
 -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실무적 딜레마, AI 활용 고지(공개)는 면책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
- 이용자의 투명성 요구는 규범적, 원칙론적이라면 언론인의 투명성 고민은 절차적, 실무적

➤ 신뢰 회복을 보는 온도가 다르다

- 이용자는 낙관적, 언론인은 조건부 낙관
- 이용자 (낙관적)
 - 공개하면 신뢰 상승할 것: 72.5%
 - AI 저널리즘 신뢰 회복 가능하다고 봄
 - 해결 방안: 투명한 공개(21.3%), 학습 데이터 다양화(19.2%), 윤리 기준(18.5%)
 - 제도적·구조적 해결로 신뢰 회복 가능하다는 기대
- 언론인 (조건부 낙관)
 - AI가 실수했기 때문에 오보라는 변명은 용납 불가: 최종 책임은 인간에게
 - 가이드라인 있어도 강제성 없음: 권고 수준에 불과
 - 조직 차원 윤리 기준 부재: 개인 단위 실험적 실천 단계
 - 기술이 아닌 조직·문화·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장 인식

➤ 이용자와 언론인이 공유하는 공통 인식

- AI가 저널리즘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
 - 이용자는 뉴스 제작 효율성 기대가 3.72점으로 높았고,
 - 언론인도 '반복·단순 업무 대체로 업무 부담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
- 인간기자와 AI의 협업 모델 지지
 - AI는 기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해야 한다
- 최종 책임은 인간
 - AI가 실수해도 책임은 기자·언론사에 있다
- 투명성은 필요하다: 공개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 없음
- AI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 이용자(45.3% 보조 도구 + 40% 협력)와 언론인('AI가 생성한 것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재료')

➤ '제로 클릭'에 대한 온도 차가 심하다

- 뉴스가 소비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 이용자 인식: 좋은 서비스(AI 요약)를 쓰는 것뿐이다
 - AI가 검색 결과를 요약, 언론사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제로 클릭(Zero-click)'에 대해 대다수 이용자는 출처인 언론사의 수익 약화보다는 자신의 정보 습득 편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 언론인 인식: 대가 없는 이용은 결국 좋은 뉴스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한다.
 - 언론인들은 AI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고 이용자를 포털/플랫폼 내에 가두는 현상을 저널리즘 생태계 파괴로 인식
 - AI의 뉴스 학습에 대한 강력한 보상과 뉴스 가치 인정을 요구(이현우, 2025).

✓ 결론 : 이용자는 AI 저널리즘을 수용한다, 다만 조건이 있다

- 누가 만드느냐 협업 모델이 단독보다 더 신뢰받는다 협업(3.27) > 인간 단독(3.11) > AI 단독(2.96)
 - 어디에 쓰이느냐 데이터·교정·번역은 수용, 팩트체크·윤리 판단·현장 취재는 인간의 몫.
 - 기능에 따른 역할 분리가 수용의 조건
 -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는 신뢰의 전제이지 보장이 아니다
 - 공개의 역할은 언론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작동하고,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공개 자체가 '성의를 신호'.
 - 기술 친숙성은 저널리즘 신뢰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 AI에 가장 익숙한 20대의 신뢰도와 이용의사가 가장 낮다.
 - 세대 역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경을 넘는 보편적인 현상.
- 이용자들은 AI 저널리즘에 호기심과 '기대'를 품으면서도 동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 그동안 언론은 이용자에 대해 무지했고, 무관심했다. 그러나 뉴스의 출발점도, 종착점도 결국 이용자이기 때문에, AI 저널리즘 시대에도 독자와의 관계, 이용자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중요하다.
- ➔ 이제, 그들이 AI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수용의 조건과 신뢰의 조건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 도구는 바뀌어도 기본적인 질문은 바뀌지 않는다

> AI는 저널리즘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존의 규범과 윤리가 답하지 못했던 질문들이다.

- 언론사 기사로 학습한 AI – 누가 보상받는가
- AI가 쓴 기사의 오보 – 누가 잘못된 것인가
- 독자가 AI에게 직접 묻는 시대 – 언론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알고리즘이 뉴스를 고르는 시대 – 편집권은 누구의 것인가

>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바꾸지 못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다.

- 이 기사는 정확한가. 이 기사는 공정한가. 이 기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도구는 바뀌었고, 질문은 더 많아졌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변하지 않았다.

> AI가 대체할 수 없는 '기자의 자리'가 있다.

- AI는 속도와 효율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가치, 인간의 진정성, 공감과 연대는 AI가 대신할 수 없다
- AI 시대,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은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이용자와 함께 '신뢰의 조건'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

세션 2: AI 대전환기, 뉴스와의 결별인가 재결합인가



뉴스와 언론은 어떻게 다른가? 뉴스의 지평과 언론의 경계

이소은(부경대), 박찬경(경북대)

참고문헌

Clerwall, C. (2014). (2014). Enter the robot journalist. *Journalism Practice*, 8(5), 519–531. <https://doi.org/10.1080/17512786.2014.883116>

Fletcher & Nielsen (2024) Fletcher, R., & Nielsen, R. K. (2024). What does the public in six countries think of generative AI in news?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https://doi.org/10.60625/RISJ-4ZB8-CG87>

Graefe, A., Haim, M., Haarmann, B., & Brosius, H.-B. (2018). Readers' perception of computer-generated news: Credibility, expertise, and readability. *Journalism*, 19(5), 595–610. <https://doi.org/10.1177/1464884916641269>

Newman, N., Fletcher, R., Robertson, C. T., Ross Arguedas, A., & Nielsen, R. K. (2024).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4.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Qin, X., Zhou, X., Chen, C., Wu, D., Zhou, H., Dong, X., Cao, L., & Lu, J. G. (2025). AI aversion or appreciation? A capability–personalization framework and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51(5), 580–599. <https://doi.org/10.1037/bul0000477>

Simon, Nielsen, & Fletcher (2025). Generative AI and news report 2025: How people think about AI's role in journalism and society.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https://doi.org/10.60625/risj-5bjv-yt69>

Toff, B., & Simon, F. M. (2025). "Or they could just not use it?": The dilemma of AI disclosure for audience trust in new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30(4), 881–903. <https://doi.org/10.1177/19401612241308697>

Waddell, T. F. (2018). A robot wrote this? How perceived machine authorship affects news credibility. *Digital Journalism*, 6(2), 236–255. <https://doi.org/10.1080/21670811.2017.1384319>

Waddell, T. F. (2019). Can an algorithm reduce the perceived bias of news? Testing the effect of machine attribution on news readers' evaluations of bias, anthropomorphism, and credibil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6(1), 82–100. <https://doi.org/10.1177/1077699018815891>

김영주, 정용국, 정재민. (2025). AI 저널리즘의 수용과 영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현우. (2025). AI 검색 서비스의 저널리즘 콘텐츠 인용 현황과 언론산업의 대응전략. KPF 미디어브리프 2025년 8호.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해영, 김창숙. (2025). 지브리 스타일,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을 바꾸다. 미디어 서베이 2025년 2호.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대주제 세션

뉴스와 언론은 어떻게 다른가? 뉴스의 지평과 언론의 경계

2026년 5월 8일
이소은(부경대학교)
박찬경(경북대학교)

문제의 제기

뉴스 개념의 확장, 언론 개념도 함께 넓어지고 있는가?

- 플랫폼 환경의 뉴스 이용 변화
 - 다양한 경로: 신문/TV + 포털, 유튜브, SNS, 메신저, AI...
 - 다양한 형식: 기사 + 영상, 이미지, 해설, 요약, 커뮤니티 게시글...
- ➔ '무엇을 뉴스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유연화
- 언론 인식 또한 유연화될까?!
 - 특정 정보를 뉴스로 소비하면서도, 해당 정보의 생산 주체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 낮은 신뢰도의 영향 등)
- 뉴스에 대한 인식과 뉴스 생산 주체에 대한 인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뉴스 신뢰, 언론 신뢰, 언론에 대한 역할 기대, 책임성 판단 등 측면에서 해석 가능

이론적 배경

뉴스 개념의 변화와 확장

▪ 사회적 개념으로서 '뉴스'

- 시의성 있는 공공적 사안을 다수에게 전달하는 정보 형식?
- 기술, 정치 체계, 취재 조직, 유통 방식의 변화에 따라 뉴스의 형식과 경계는 지속적으로 변화
- 뉴스는 고정된 범주라기보다 다른 정보 형식과의 경계짓기를 통해 정의되는 개념(Lewis, 2012)

이론적 배경

뉴스 개념의 변화와 확장

▪ 이용자 중심의 접근

- “뉴스성(news-newss)”(Edgerly & Vraga, 2020):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뉴스로 규정하는 정도에 주목. 이용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것으로서 뉴스
- 젊은 세대의 뉴스 인식 → 새로운 뉴스 개념의 부상
 - “세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며,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것”(Swart, 2023)
 - 특정 이슈가 ‘공적으로 중요’한가보다, 그 주제가 ‘나와 관련이 있는가’(Klopfenstein Frei, Wyss & Gnach et al., 2024), ‘내가 관심 있는 새로운 사실인가’(Anderson, 2025)가 중요
 -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Reuters Institute for Journalism, 2019)

이론적 배경

뉴스 개념의 변화와 확장

▪ 뉴스 가치 중심의 접근

- 사건의 속성, 기자의 평가, 언론사 조직의 관행, 언론사 외부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따라 뉴스 가치가 결정됨(Gitlin, 1980)
- 시의적이고, 영향력 있으며,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이슈들(Galtung & Ruge, 1965)
- 파워엘리트, 유명인, 연예, 놀라움, 부정성, 긍정성, 강도, 관련성, 후속기사, 언론의제(Harcup & O'Neil, 2001)
- 온라인 공간에서 추가되는 가치: 차별성, 갈등, 시청각 요소, 공유가능성, 드라마(Harcup & O'Neil, 2017)

▪ 특징

- 생산자의 관점에서 뉴스 가치를 평가
- 그 외 요인에 의해 조정되는 뉴스 가치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이론적 배경

뉴스 개념의 변화와 확장

▪ 이용자 중심의 접근

- 여러 콘텐츠 가운데 가장 손쉽게, 함부로, 대충 이용하는 장르 또는 영역으로, ‘정보·지식’ 콘텐츠나 ‘재미·휴식’ 콘텐츠와 구별됨(박재영 & 안수찬, 2025). ‘이슈 이용자’, ‘재미 이용자’, ‘지식 이용자’에 따라 강조하는 뉴스성이 상이함

▪ 특징

- 뉴스는 여러 수준, 차원으로 구성된 연속적 스펙트럼
- 여전히 ‘가치’를 도출하려는 경향이 확인됨

이론적 배경

언론 개념의 변화와 경계

- 뉴스 현실과 뉴스 규범의 구분
 - 뉴스 가치 중심 연구의 한계: 뉴스에 대한 경험적 설명 ≠ 규범적 기대(Stromback, Karlson & Hopmann, 2012)
 - '뉴스'가 콘텐츠 성격과 범위를 가리킨다면, 정당한 뉴스 생산 주체에 대한 판단은 '언론' 개념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

7

이론적 배경

언론 개념의 변화와 경계

- 플랫폼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계 효과
 - 전통적 주체에 대한 규범 가치 기대 vs. 디지털 생산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용(Banjac & Hanusch, 2022)
 - 뉴스의 규범적 이상이 투사되는 상징적 매개물로서 전통 언론(이소은, 2024; Mathews, 2024; Verboord, 2022)
- 이용 대상으로서 언론 vs. 규범으로서 언론
 - 뉴스처럼 기능하는 것과 언론으로 인정되는 것이 분리될 가능성
 - 뉴스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언론 개념의 경계가 어떻게 유지, 재구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9

이론적 배경

언론 개념의 변화와 경계

- 사회적으로 정당한 공적 지식 생산 주체로서 언론
 - 언론, 저널리즘에 대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규범적 기대(Allern & Pollack, 2019; Carlson, 2016; Loosen et al., 2022)
- 이용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중성
 - 시민의 요구(citizen demands) vs. 시민적 요구(civic demands)(Van der Wurff & Schoenback, 2014)
 - 일상 업무를 위한 실천적 지침 vs. 직업집단이 공유하는 규범 및 이념(Truyens & Picone, 2021)

8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연구문제

- RQ1. 이용자들은 어떤 콘텐츠를 뉴스로 인식하는가?
- RQ2. 이용자들은 어떤 주체를 언론으로 인식하는가?
- RQ3. 뉴스 인식과 언론 인식은 같은 구조인가, 다른 구조인가?
- RQ4. 이러한 인식 차이는 뉴스 이용 및 뉴스 신뢰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10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연구방법

- 자료수집
 - 서울/경기 거주 성인남녀 6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엠브레인 패널 활용)
 - 2026년 4월 6일~9일 실시
 - 뉴스 인식, 언론 인식, 평소 뉴스 이용 경로, 뉴스 및 언론에 대한 평가, 신뢰 등 조사
- 분석
 - 기초 분석(RQ1, RQ2): 빈도분석, 기술통계
 - 인식 지형(RQ3): IRT(Item Response Theory)의 GRM(Graded Response Model) 활용 분석
 - 요인 분석의 일종이나 순서척도에 응용
 -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다른 난이도를 가지는 시험 문제처럼 취급. 설문에 주어진 각 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판별(thresholds)
 - 해석 가능성과 간명성을 위해 1차원 모형 사용
 - 관계성(RQ4): 구조방정식, 회귀분석

11

분석결과

뉴스 인식과 언론 인식 구조의 차이

▪ 뉴스(thresholds)

▪ 언론(thresholds)

13

분석결과

뉴스 및 언론에 대한 인식

▪ 뉴스(문항별 응답 분포)

▪ 언론(문항별 응답 분포)

12

분석결과

뉴스 인식과 언론 인식 구조의 차이

▪ 뉴스(thresholds)

▪ 해석

- 전통적 뉴스에 가까운 정보들은 threshold가 넓게 퍼져 있음 = 단계적 판단을 함
- 비전통적 정보들은 응답이 더 압축되는 경향 = “맞다/아니다” 식의 이분법적 판단을 함
- 전통적 뉴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뉴스다운가’를 세밀하게 구분, 주변적 사례에 대해서는 인정 여부 자체를 더 강하게 판단
- 뉴스 핵심부와 주변부의 차이가 비교적 큼
- “bounded continuum”

14

분석결과

뉴스 인식과 언론 인식 구조의 차이

- 언론(thresholds)
 - 정당 지지 집단 계층
 - 커뮤니티 시사 이용자
 - SNS 뉴스 요약 계층
 - 기업 뉴스 형식
 - 시사 크리에이티브
 - 공익적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유튜브
 - 포털
 - 언론사 유튜브
 - 인터넷 언론
 - 신문사
 - TV 방송사
- 해석
 - 언론에 대한 판단은 점진적으로 배열됨
 -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경계가 퍼져 있는 개념
 - '얼마나 언론다운가?'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음
 - "unbounded category"

15

분석결과

뉴스, 언론 인식과 뉴스 이용량

- 구조방정식 모형
 - news_use = $\beta_1 bnews + \beta_2 bpress + \zeta$ (boundary driven part + residual)
 - Path coefficients: $\gamma_1 = 0.28^{***}, \gamma_2 = 0.17, \gamma_3 = 0.3, \gamma_4 = 0.19, \gamma_5 = 0.87, \gamma_6 = 0.44^{**}, \gamma_7 = 0.1, \gamma_8 = 0.5, \gamma_9 = 0.41^{***}$
 - Path coefficients: $\delta_1 = 0.11^{**}, \delta_2 = 0.21^{***}, \delta_3 = -0.14^*, \delta_4 = -0.01, \delta_5 = -0.06, \delta_6 = -0.11, \delta_7 = 0.09$
 - Path coefficients: $\epsilon_1 = 0.13, \epsilon_2 = -0.03$
 - Path coefficients: $\theta_1 = 1, \theta_2 = 1.25^*, \theta_3 = 1.25, \theta_4 = 1.01, \theta_5 = 2.79^*, \theta_6 = 2.33, \theta_7 = 2.26^*, \theta_8 = 1.80, \theta_9 = 1.85^{**}$

17

분석결과

뉴스 인식과 언론 인식 구조의 차이

- 뉴스(문항별 평균 thresholds)
 - 언론사 예능
 - 커뮤니티 사건 요약
 - 인물투어서 이슈 이미지
 - 블로거 이슈 해설
 - 기업 SNS 신제품 안내
 - 언론사 상업정보
 - 지인 메시지 카드뉴스
 - 크리에이티브 이슈 해설
 - 언론사 쇼츠
 - 정부 SNS 정책 설명
 - 언론사/웹 기사
 - 포털 메인 기사
- 언론(문항별 평균 thresholds)
 - 정당 지지 집단 계층
 - 커뮤니티 시사 이용자
 - SNS 뉴스 요약 계층
 - 기업 뉴스 형식
 - 시사 크리에이티브
 - 공익적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유튜브
 - 포털
 - 언론사 유튜브
 - 인터넷 언론
 - 신문사
 - TV 방송사

16

분석결과

뉴스, 언론 인식과 뉴스 이용량

- 구조방정식 모형
 - (잠재) 뉴스 이용량은 뉴미디어(메신저, AI, OTT, SNS, 동영상플랫폼)를 통한 뉴스 이용과 더욱 강하게 연결됨
 - 뉴스 이용의 공통 패턴이 전통 매체보다 플랫폼 기반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

Latent Factor	Indicator	Loading	95% CI	Standardized sig	SE	z	p
news_use	freq_days_ai	0.616	0.556 — 0.676	***	0.031	20.050	0.000
news_use	freq_days_msg	0.698	0.645 — 0.752	***	0.027	25.707	0.000
news_use	freq_days_newspaper	0.400	0.324 — 0.477	***	0.039	10.281	0.000
news_use	freq_days_ott	0.603	0.542 — 0.664	***	0.031	19.350	0.000
news_use	freq_days_portal	0.491	0.420 — 0.562	***	0.036	13.591	0.000
news_use	freq_days_radio	0.404	0.328 — 0.480	***	0.039	10.392	0.000
news_use	freq_days_sns	0.593	0.531 — 0.655	***	0.032	18.747	0.000
news_use	freq_days_tv	0.359	0.279 — 0.438	***	0.040	8.879	0.000
news_use	freq_days_video	0.568	0.503 — 0.632	***	0.033	17.243	0.000

* p < .05, ** p < .01, *** p < .001

18

분석결과

뉴스, 언론 인식과 뉴스 이용량, 뉴스 신뢰

회귀 모형

Predictor	DV	β	95% CI	Standardized sig	SE	z	p
bnews	freq_days_ai	0.106	0.082 — 0.291	***	0.053	3.490	<0.001
bnews	freq_days_ai	-0.057	-0.163 — 0.049		0.054	-1.048	0.295
bnews	freq_days_msg	0.215	0.111 — 0.319	***	0.053	4.064	<0.001
bnews	freq_days_msg	-0.061	-0.167 — 0.045		0.054	-1.132	0.258
bnews	freq_days_newspaper	0.155	0.049 — 0.261	**	0.054	2.875	0.004
bnews	freq_days_newspaper	-0.129	-0.235 — -0.023	*	0.054	-2.391	0.017
bnews	freq_days_ott	0.242	0.139 — 0.345	***	0.053	4.610	<0.001
bnews	freq_days_ott	-0.123	-0.228 — -0.018	*	0.054	-2.295	0.022
bnews	freq_days_portal	0.038	-0.069 — 0.145		0.055	0.696	0.486
bnews	freq_days_portal	-0.005	-0.113 — 0.102		0.055	-0.097	0.923
bnews	freq_days_radio	0.137	0.031 — 0.243	*	0.054	2.524	0.012
bnews	freq_days_radio	-0.069	-0.175 — 0.038		0.054	-1.260	0.208
bnews	freq_days_sns	0.154	0.049 — 0.258	**	0.053	2.871	0.004
bnews	freq_days_sns	0.027	-0.079 — 0.133		0.054	0.499	0.618
bnews	freq_days_tv	0.066	-0.041 — 0.173		0.055	1.208	0.227
bnews	freq_days_tv	-0.024	-0.131 — 0.083		0.055	-0.439	0.661
bnews	freq_days_video	0.040	-0.066 — 0.147		0.054	0.740	0.459
bnews	freq_days_video	0.084	-0.023 — 0.190		0.054	1.541	0.123
age	trust_1	-0.002	-0.060 — 0.075		0.040	-0.050	0.952
bnews	trust_1	0.129	0.028 — 0.231	*	0.052	2.493	0.013
bnews	trust_1	0.241	0.140 — 0.343	***	0.052	4.674	<0.001
gender	trust_1	-0.082	-0.158 — -0.005	*	0.039	-2.059	0.037
hedu	trust_1	-0.049	-0.126 — 0.027		0.039	-1.259	0.208
hana	trust_1	0.041	-0.035 — 0.110		0.039	1.052	0.288
ideo	trust_1	-0.011	-0.096 — 0.064		0.038	-0.293	0.770
news_use	trust_1	-0.028	-0.110 — 0.055		0.042	-0.659	0.510
print	trust_1	-0.065	-0.142 — 0.012		0.039	-1.654	0.096

* p < .05. ** p < .01. *** p < .001

결론

분석결과 요약 및 함의

- 뉴스 ≠ 언론
 - 뉴스의 지평은 단순히 넓어지기보다는 핵심부와 주변부와 다층화됨
 - 언론의 경계는 닫혀있다가보다는 제도적 정당성의 연속선 위에서 재배열됨
 - 뉴스 인식은 콘텐츠 형식, 내용, 유통 경로에 따라, 언론 인식은 정보 제공 주체의 제도성, 지속성, 정당성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
- 뉴스 이용량
 - 뉴스 이용량은 단순한 노출 빈도가 아니라 응답자가 무엇을 뉴스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특히 디지털 플랫폼처럼 뉴스/비뉴스가 섞인 경로에서는 '뉴스 이용'이 행동량이자 분류 판단의 결과
 - 뉴스 이용 연구는 뉴스 이용량 뿐 아니라 뉴스 인식을 함께 측정해야

분석결과

뉴스, 언론 인식과 뉴스 이용량, 뉴스 신뢰

회귀 모형

- 뉴스 경계 점수가 높을수록 여러 경로에서 보고된 뉴스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
- 언론 경계 점수의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음. 일부 경로에서 부적 관계가 나타남(특히 OTT)
- 뉴스 신뢰는 뉴스 이용량보다 뉴스, 언론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더 밀접하게 관련됨
- 특히 언론 경계 점수의 효과가 뉴스 경계 점수보다 강하게 나타남
- 뉴스 신뢰가 콘텐츠 범주 판단보다는 정보 제공 주체의 정당성 판단과 더 깊이 연결될 가능성
- 신뢰를 경로별 뉴스 이용량과 관련짓던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로서 의의가 있음

결론

분석결과 요약 및 함의

- 뉴스 신뢰
 - 뉴스 신뢰는 무엇을 뉴스로 보고 누구를 언론으로 인정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됨
 - 특히, 언론 경계 인식의 영향력이 큼
 - 신뢰는 콘텐츠 범주 판단보다 정보 제공 주체의 정당성 판단에 더 크게 의존할 가능성
- 연구의 함의
 - 뉴스 이용 연구의 개념적 전제 검토 필요성 확인: 응답자의 뉴스 판단에 대한 확인 필요
 - 뉴스 신뢰 연구의 초점 이동: 뉴스 이용량을 넘어 언론 주체의 정당성 판단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후속 연구 필요

참고문헌

김해영 (2024). <뉴스 이용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언론수용자 FGI를 통해 본 뉴스와 시사 정보 개념의 개념의 변화>.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재영 · 안수진 (2025). <무엇이 '뉴스'인가: 이용자들의 뉴스 개념 인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선민 · 진민정 · 이봉현 (2020). 밀레니얼 세대의 뉴스 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34(4), 80-115.

이소은 (2024). <종이신문과 온라인 뉴스의 공존과 도전>.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연구보고서.

Allern, S., & Pollack, E. (2019). Journalism as a public good: A Scandinavian perspective. *Journalism*, 20(11), 1423-1439.

Anderson, K. J. (2025). What is news? Exploring differences in how younger and older cohorts use news in today's media environment. *Communication Research and Practice*, 11(1), 3723.

Banjac, S., & Hanusch, F. (2023). The struggle for authority and legitimacy: Lifestyle and political journalists' discursive boundary work. *Journalism*, 24(10), 2155-2173.

Carlson, M. (2016). Metajournalistic discourse and the meanings of journalism: Definitional control, boundary work, and legitimation. *Communication Theory*, 26(4), 349-368.

Clark, L. S., & Marchi, R. (2017). *Young people and the future of news: Social media and the rise of connective jour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rtesi, S., & Gasser, U. (2015). Public service media? Youth online and news: A phenomenological view on "d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1425-1448.

Craft, S., Ashley, S., & Maks, A. (2016). Elements of news literacy: A focus group study of how teenagers define news and why they consume it. *Electronic News*, 10(3), 143-160.

Duvekot, S., Valgas, C. M., de Haan, Y., & de Jong, W. (2024). How youth define, consume, and evaluate news: Reviewing two decades of research. *New Media & Society*. <https://doi.org/10.1177/14614448241262809>

Edgerly, S. (2017). Making sense and drawing lines: Young adults and the mixing of news and entertainment. *Journalism Studies*, 18(8), 1052-1069.

Edgerly, S., & Vraga, E. K. (2020). Deciding what's news: News-ness as an audience concept for the hybrid media environmen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7(2), 416-434.

Galtung, J., & Ruge, M. H. (1965). The structure of foreign news: The presentation of the Congo, Cuba and Cyprus crises in four Norwegian newspapers. *Journal of Peace Research*, 2(1), 64-90.

Gitlin, T. (1980).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Hanitzsch, T., & Vos, T. P. (2017). Journalistic roles and the struggle over institutional identity: The discursive constitution of journalism. *Communication Theory*, 27(2), 115-135.

Harcup & O'Neill (2001). What is news? Galtung and Ruge revisited. *Journalism Studies*, 2(2), 261-280.

Harcup & O'Neill (2017). What is news? News values revisited (again). *Journalism Studies*, 18(12), 1470-1488.

참고문헌

Hendrickx, J. (2024). "Normal news is boring": How young adults encounter and experience news on Instagram and TikTok. *New Media & Society*, 27(10), 5736-5754.

Klopfenstein Frei, N., Wyss, V., Gnach, A., et al. (2024). "It's a matter of age": Four dimensions of youths' news consumption. *Journalism*, 25(1), 100-121.

Lewis, S. C. (2012). The tension between professional control and open participation: Journalism and its boundar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6), 836-866.

Loosen, W., Ahva, L., Reimer, J., Solbach, P., Deuze, M., & Matzat, L. (2022). 'X Journalism'. Exploring journalism's diverse meanings through the names we give it. *Journalism*, 23(1), 39-58.

Mathews, N. (2024). Print imprint: The connection between the physical newspaper and the self.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48(3), 356-370.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 Nielsen, R. K. (2019).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9*. Journalism. Retrieved from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inline-files/DNR_2019_FINAL.pdf

Reuters Journalism Institute (2019). How young people consume news and the implications for mainstream media. Retrieved from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our-research/how-young-people-consume-news-and-implications-mainstream-media>

Riedl, A., & Eberl, J. M. (2022). Audience Expectations of Journalism: What's politics got to do with it?. *Journalism*, 23(8), 1682-1699.

Robertson, C. T. (2023). Defining news from an audience perspective at a time of crisi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ism Practice*, 17(2), 374-390.

Schwaiger, L., Vogler, D., & Eisenecker, M. (2022). Change in news access, change in expectations? How young social media users in Switzerland evaluate the functions and quality of new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7(3), 609-628.

Stromback, J., Karlsson, M., & Hopmann, D. N. (2012). Determinants of news content: comparing journalists' perceptions of the normative and actual impact of different event properties when deciding what's news. *Journalism Studies*, 13(5-6), 718-728.

Swart, J., & Broersma, M. (2024). What feels like news?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news on Instagram. *Journalism*, 25(8), 1620-1637.

Swart, J. (2023). Tactics of news literacy: How young people access, evaluate, and engage with news on social media. *New Media & Society*, 25(3), 505-521.

Truyens, P., & Picone, I. (2021). Audience views on professional norms of journalism. A media repertoire approach. *Journalism and Media*, 2(2), 258-274.

Van der Wurff, R., & Schoenbach, K. (2014). Civic and citizen demands of news media and journalists: What does the audience expect from good journalis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1(3), 433-451.

Verboord, M. (2022). Validation repertoires of media audiences in the digital age: Examining the legitimate authority of cultural mediator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9(2), 440-462.

감사합니다 ☺

petitsilver@gmail.com
chankyungpak@knu.ac.kr

